

7 2025 VOL. 349

www.innekorean.or.id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한인회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1991-2025

 PT. BOSUNG INDONESIA

34년의 경험으로

고객의 미래를 포장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 월간 한인뉴스 7 2025

###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김종현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김종현

**편집인** 양대화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이영미

**편집위원** 최인실, 조은아, 김영섭

송기섭, 노병진, 송호진, 고광희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0812-1960-308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양진영 작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은 본섬인 자바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제가 방문한 빠당 지역의 'Pacu Jawi'는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의 타나 다타르(Tanah Datar) 지역에서 열리는 전통 황소 경주입니다. 광복절을 기준으로 매년 4주간 토요일마다 열리며 쌀 수확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황소가 느슨하게 묶인 나무 쟁기를 끌고 진흙으로 뒤덮인 논을 약 60~250미터 달립니다. 기수는 쟁기 위에서 황소의 꼬리를 잡고 균형을 유지하며 함께 달립니다. 관중들은 황소의 속도와 직진성 등 성능을 기준으로 우열을 가리고 뛰어난 황소는 평소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됩니다.

Pacu Jawi는 타나 다타르의 네 개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수 세기 동안 이어온 전통으로 지역 문화 축제 '알렉 파추 자위(Alek Pacu Jawi)'와 함께 진행됩니다.

##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프라보워 대통령의 외교 노선은  
어디에서 유래됐나?**

## 9

[한인회 이모저모]

**한인청소년 장학기금 위한  
자선골프대회 준비 본격화**

## 11

[김재훈의 '세무 TALK']

**개인 소득세 신고와 주의 사항**

## 12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인도네시아>**

## 16

**이달의 PREVIEW**

## 18

**[여기가 맛집] Cosmo Pony <황지영>**



# contents

2025. 7. 통권 349호

21

[다카시 풍경] **별리** <김동환>

22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23]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26

인도네시아 이주와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조연숙>

28

[서상영의 한방칼럼 27]  
**생활한의학 10 화병**

32

[손상현의 자카르타의 아침]  
**마음처럼 되지 않는 골프는**

36

[행복에세이] **다정한 너** <강인수>

38

[인터뷰 2.0] **신영아바디**  
(PT Sinyong Abadi)  
이승수 대표

45

[숨씨에 반하다] <김수남>

46

[KF뉴스]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14명 한국 초청  
**한-인니 교류의 미래를 잇다**

47

KT&G복지재단, 해피피플과 함께  
인도네시아 하라판 카쉬 방사  
학교 신축 준공

48

[JIKS] 2025 JIKS  
**Swimming Competition**

49

[민주평통]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제21기 2차 정기회의 성료

50

[Hyaang the Yoga 10]  
발리에서 요가 자격증 따며  
한 달 살기  
<Michelle>

52

[취미부자 열정고수]  
**어쩌다 보니 운동예찬론자** <임혜영>

55

[주아세안대표부]  
**2025 한-아세안 연계성  
포럼 개최**

56

[아종의 코-인사이드]  
**나는 존재감으로 위로 받는다**

58

[자카르타한인어린이합창단]  
**내가 바라는 세상을 노래해요!!!**

62

[이 학교를 소개합니다]  
**글로벌자야(Global Jaya School)**

66

인도네시아법 해설(347회)  
**종교법 3** <이승민>

68

**생활정보**

## 프라보워 대통령의 외교 노선은 어디에서 유래됐나?



논설위원 신성철

수하르토부터 조코 위도도 정부까지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균형 외교 정책을 펼치며 미·중 갈등 속에서도 양국 모두와 가깝게 지내고 있다. 굳이 구별을 하자면 경제에서는 중국과, 안보에서는 미국과 가까웠다. 2024년 10월, 인도네시아 제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집권 6개월 만에 인도네시아 외교의 방향성을 근본부터 흔들고 재정립했다. 중국과 러시아,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외교적 매력 공세 (Diplomatic Charm Offensive), 미국과의 거리 두기, 그리고 브릭스(BRICS) 가입이라는 굵직한 외교 행보는 기존 인도네시아 외교전통과 결을 달리하면서도, 동시에 과거의 이념을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프라보워 외교의 철학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 뿌리는 인도네시아 외교의 태동기, 바로 독립국 인도네시아를 설계한 모하맛 하타의 외교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외교의 기초를 세운 인물은 초대 부통령 모하맛 하타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인 1920년대, 네덜란드에서 유학 중인 하타는 현지에서 인도네시아인 유학생 단체인 인도네시아연합회(PI, Perhimpunan Indonesia)의 총무(1922~1925)와 회장(1926~1930)을 맡으며 반식민·반제국주의 운동을 전개했다. 토착 엘리트 계층이었던 인도네시아인 유학생들이 보인 이와 같은 태도 변화에 네덜란드 당국은 당황했으며, 1927년 6월 하타와 PI의 다른 네 지도자가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하타는 독립 후에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정책(Free and Active Foreign Policy)’을 내세워 인도네시아가 어느 진영에도 예속되지 않도록 했다. 그의 외교는 중립 외교와는 다른,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강대국들과 동등하게 협상하는 ‘능동적 외교’를 지향했다.

### 다극 질서에서의 다중 포지셔닝

프라보워의 외교는 하타의 원칙을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21세기 전략적 환경에 맞게 확장한 형태다. 그가 언급한 ‘친구는 천 명도 부족하고, 적은 한 명도 많다’ (One thousand friends too few, one enemy too many)라는 외교 슬로건은 겉보기에 실용주의 외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극 체제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자율성과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균형외교’다. 이는 하타가 꿈꾸던 외교 노선의 현대적 재해석이라 볼 수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택하고, 이어 미국을 방문했다. 중국과는 ‘2+2 대화’를 통해 해양안보, 핵심광물, 인프라 등에서 협력을 강화했고, 미국과는

관세 협상을 벌였다. 한 주 안에 양국을 모두 방문하며 ‘비동맹 속 실익 추구’ 라는 외교 전략을 구체화한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 1월 동남아시아 최초로 브릭스(BRICS) 정회원이 되었고, 프라보워는 취임 6개월 만에 러시아, 중동, 튀르키예 등과 연쇄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중동 순방에서 기후·해양·방산·종교협력 MOU를 맺고, 카타르로부터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으며, 이집트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맺었다. 이처럼 프라보워는 ‘한 진영에 치우치지 않되, 동시에 모두와 전략적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실리 외교가 아니라, 자국의 위상을 다극 질서 속 핵심 축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 **외교는 곧 안보 전략… 군 출신 대통령의 현실 인식**

프라보워는 특수부대(Kopassus) 장성 출신답게 외교를 안보 전략과 밀접하게 결합시킨다. 튀르키예에서 드론 60여 대 도입, 장교들의 사이버·정보·대테러 훈련 파견 협정은 그 대표적인 예다. 러시아와는 유라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선언하며 군사기술 협력을 공고히 했다. 에너지·농산물·우주개발까지 협력 분야는 광범위하다.

이러한 외교 전략은 프라보워의 참모 중 핵심인물인 외교장관 수기오노의 활동에서도 드러난다. ‘프라보워의 사상, 철학, 정치적 신념을 계승한 인물(ideological child)로 불리는 수기오노는 군사와 정치 양쪽에서 경험을 쌓은 인물로,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외교 실무를 이끌고 있다. 그가 관세 협상 직후 중국과 2+2 회담을 이끈 것은 인도네시아 외교의 우선순위가 ‘균형’ 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 **한국과의 관계, 어떻게 이어지나**

이러한 프라보워의 외교 전략 속에서 한국과의 관계는 어떤 위치에 놓일까?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과 6월 23일 직접 통화를 통해 축하를 전하고, 방산·첨단산업·디지털 전환 등 전략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첫 해외 투자국이자 아세안 핵심 협력국이며, 이미 1973년 수교 이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은 관계로 발전해 왔다. 특히 KF-21 공동개발, 해양안보 협력 등은 양국의 군사·경제 외교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프라보워 시대의 외교는 다극 질서 속 인도네시아의 위상 제고를 지향하며,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그 안에서 중요한 기술·방산 협력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의 외교 전략에서도 한국과의 연대는 지정학적 이익, 경제 실익, 그리고 기술과 자원으로 대표하는 파트너십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Good Shot for Good Future  
Drive for Hope

# 미래를 향해 함께 걷는 GREEN

제1회 2025 재인도네시아 한인청소년  
장학기금 후원 자선골프대회



2025년 8월 15일 (금)  
오전 11시 30분  
Damai Indah Golf (PIK)

문의: 한인회 사무국  
021-521 2515  
Korasos (카카오톡)



재인도네시아 한인청소년  
장학기금 후원 자선골프대회  
Google Forms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 한인청소년 장학기금 위한 자선골프대회 준비 본격화

### - 제1회 자선골프대회 성공 위한 한인회 회의 열려 -

지난 6월 26일, 자카르타 무궁화 본점 2층 ‘꽃길’에서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행사 관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2025 재인도네시아 한인청소년 장학기금 후원 자선골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8월 15일(금) Damai Indah Golf (PIK 코스)에서 열릴 자선 골프대회의 운영 계획, 후원 접수 절차, 참가자 모집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미래를 향해 함께 걷는 그린(Green)’이라는 대회 슬로건처럼 교육

의 기회를 필요로 하는 한인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중헌 한인회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한인사회가 다음 세대를 응원하는 따뜻한 연대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동포들의 관심과 참여, 후원을 부탁했다. 이번 자선행사는 한인회 임원 및 한인 동포 128명이 선착순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모든 후원금은 전액 한인 청소년 장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KIMA 기업가 정신 9기, 인도네시아 한인회 방문 한인회장과 교류 시간 가져

한인도네시아경영학회(KIMA) 기업가 정신 9기 15명의 CEO들이 인도네시아 현지 워크숍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김종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참가자들은 김종헌 회장과의 환담을 통해 한인회 활동과 인도네시아의 경제 및 진출 환경에 대해 이해를 넓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6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현지 시장 조사와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글로벌 경영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영천시와 MOU 체결



5월 27일 재인도네시아한인회와 영천시 무역사절단은 인력 및 기술 교류, 수출지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영천시 사절단은 인도네시아 내 한국 식품 유통의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무궁화 유통’을 방문, 현지 유통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영천시 우수 농식품을 소개하며 판로 확대에 나섰다.

김종헌 한인회장은 “이번 협력은 단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한인 사회가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민간외교와 경제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개인 소득세 신고와 주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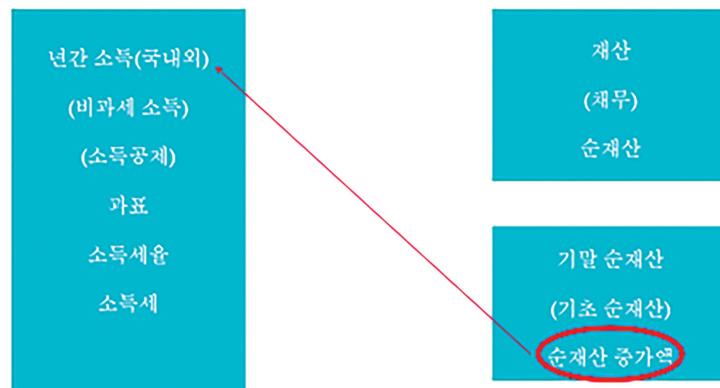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개인 납세자(Wajib Pajak Orang Pribadi)는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최근 들어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SP2DK 발송 및 세무조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세무당국의 세수 부족뿐만 아니라, 세무 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접근 권한의 강화와 시스템 기반의 관리체계 고도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AEOI)”에 가입하였으며, 2018년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해 2017년 5월 8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2017을 공포하였다. 이어서 재무부 규정 PMK No.70/PMK.03/2017이 제정되었고, 이는 2018년 PMK No.19/PMK.03/2018로 개정되었다. 올해부터 Coretax System 운영으로 해당 규정은 작년 8월 다시 개정되어, PMK No.47/2024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세무 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기술적 지침(PMK No.70/2017)”의 개정안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개인 소득세 신고서의 특징은 아래 도표로 요약할 수 있다. 상기 요약과 같이 연말기준으로 재산과 채무 내용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 개인 소득세 신고서 요약



작년말 신고된 순재산액과 금년말 신고된 순재산액의 차이 즉 순 재산 증가액이 소득을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누락된 재산은 앞에 언급된 시스템에서 찾아 내기 때문에 누락된 재산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개인 납세자는 금융거래 및 자산 관련 정보가 세무 당국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세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

## 2025년 6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 <경제 비즈니스>

## 현대차 ‘크레타’, 인도네시아 판매 35% 급증...현지 전략모델로 안착 날씨·도로환경 반영한 설계에 ‘국민 SUV’ 부상...전체 판매 비중 33% 차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미국 관세 리스크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전략형 소형 SUV ‘크레타(Creta)’가 인도네시아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인도네시아에서 크레타는 총 2,834대가 판매돼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현대차 전체 판매가 소폭 감소(-2%)한 상황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2024년 기준 크레타는 현대차 인도네시아 판매량의 33%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24%) 대비 9%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현지 자동차산업협회(GAIKINDO)에 따르면, 크레타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내구성과 실용성,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모두 갖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고온다습한 기후와 비포장도로가 많은 특성을 가진 시장”이라

며 “이를 반영해 고장력 강판 적용 면적을 넓히고, 뒷좌석 에어컨을 기본 사양으로 채택해 현지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크레타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크레타는 인도와 브라질에서도 뛰어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누적 판매량이 123만 대를 넘겼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두 달 연속 판매 1위를 차지했다. 브라질에서도 누적 판매 50만 대 돌파가 가시화되는 등 글로벌 전략 모델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 등 주요 시장에서 크레타 EV(전기차), 크레타 N라인(고성능 모델)을 선보였으며,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도 검토 중이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향후 다양한 파워트레인 확대를 통해 라인업을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인니, 2만4,000톤 우라늄 매장... 중·러 원전 기술 도입 검토

인도네시아가 향후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서부 칼리만탄에 확인된 24,000톤 규모의 우라늄 매장을 활용하기로 하면서,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중국·러시아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025~2034년 전력공급기본계획(RUPTL) 관련, 윌리웃 탄중 에너지광물자원부 차관은

지난 6월 21일 “향후 10년간 69.5GW의 발전 설비 용량을 추가하는 정부 로드맵에 원전 개발이 포함돼 있다”며 “그중 500MW를 원자력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에 각각 250MW씩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관은 이어 “현재 중국·러시아 원전 기술이 후보로 올라와 있으며, 소형모듈원전(SMR)과 대형원전

(LWR) 중 어떤 설계를 택할지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등 일부 국가는 대형원전을 채택했지만, 인도네시아는 파트너 결정에 앞서 글로벌 SMR 사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기술 선정과 함께 현지 조달(국산화) 비율도 주요 고려 대상인데, 현재 기준 목표치는 약 40%다.

정부는 서부칼리만탄 우라늄을 원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사성 물질(우라늄 등) 정제·가공을 허용하는 새 규정도 마련 중이다. 국영 전력사 PLN의 RUPTL에 따르면, 서부칼리만탄 멜라위(Melawi)군에는 24,112톤가량의 우라늄이 매장돼 있으며, 수력·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도 풍부하다.

우라늄은 원자로 핵심 연료이지만, 인도네시아 원전 개발은 정부 정책·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윌리웃 차관은 “정부 규제 초안을 마

무리 중이며, 조속히 시행해 우라늄 가공을 가능케 할 것”이라면서 “방사성 물질 관리는 엄격한 감독이 필요한 전문 사업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개발에는 국가연구혁신청(BRIN), 원자력규제청(Bapeten), 에너지부 등이 참여한다. “환경영향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현 단계에선 우라늄 정제·가공 설비 구축 준비가 핵심”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앞서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부 장관은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을 각 250MW 규모 인도네시아 첫 원전 부지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재생·저탄소 에너지 전환 계획의 일환이다.

RUPTL에 따르면 추가 설비 69.5GW 중 61%(42.6GW)는 재생에너지, 15%(10.3GW)는 에너지 저장, 나머지 24%(16.6GW)는 화석연료로 충당될 예정이다. 화석연료 비중은 가스 10.3GW, 석탄 6.3GW다.

## 인니, 등록 미이행 시 eBay·나이키·레노버 등 플랫폼 차단 경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eBay, 나이키(Nike), 레노버(Lenovo) 등 7개 주요 글로벌 브랜드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도네시아 내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발표에서, 2020년 제5호 정부 규정에 따라 모든 전자 시스템 제공자(Private Electronic System Operators)는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다수의 외국계 기업에 공식 경고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등록 미이행으로 경고를 받은 기업은 다음과 같다. 필립스(philips.com, PT Philips Indonesia Commercial), 베스 & 보디 워크스(bathandbody-works.co.id, PT Dunia Luxindo), 이베이(ebay.com 및 eBay 앱, eBay, Inc.), 나이키(nike.com 및 Nike 앱, Nike, Inc.), 엑스박스(xbox.com 및

Xbox 앱, Microsoft Corporation), KLM 로열더치항공(klm.com 및 KLM 앱, KLM Royal Dutch Airlines), 레노버(lenovo.com 및 Lenovo 앱, PT Lenovo Indonesia) 등이다.

알렉산더 사바르 디지털공간감독국장은 “6월 17일 기준, 이들 기업은 등록 절차 이행과 관련한 적절한 답변이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디지털 생태계 유지를 위해 등록 의무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기술적 문제나 행정 절차상 장애에 대한 소명 기회를 열어두고 있으며, 등록 절차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알렉산더 국장은 지속적인 불이행 시 해당 플랫폼에 대한 인도네시아 내 접근을 전면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자카르타 주지사 “자카르타, ‘경제 수도’로 위상 유지할 것”

자카르타 주정부가 동부칼리만탄주 누산타라 (IKN)로의 수도 이전 계획과는 별개로, 자카르타가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경제 수도’ 이자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프라모노 아눔 자카르타 주지사는 23일 자카르타 건립 498주년을 기념해 모나스 광장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자카르타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 50위 안에 들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 교통, 환경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자카르타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핵심 분야의 성과를 강조했다. 또한 “자카르타는 과거 순다플라빠라는 작은 항구에서 시작해 국가의 수도이자 경제 중심지로 성장해 왔으며, 이제는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노 카르노 부지사와 함께한 취임 100일

성과를 언급하며,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아낌 없는 지지와 협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인프라 개발, 삶의 질 향상, 문화 정체성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카르타의 발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특히 자카르타의 다문화성과 문화적 다양성이 도시의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라며, “포용적이고 문화적으로 풍부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498년이라는 자카르타의 긴 역사와 유산을 되새기며, 과거 자카르타를 이끌어온 지도자들과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이 도시는 수많은 발전의 영웅들이 함께 만들어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와 참여를 바탕으로 자카르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 인니 “도시 청년용 미니 주택, 주거 환경 부적합”

### 정부의 소형 주택 계획에 비판 이어져… “건강·존엄성 위협”

인도네시아 공공주택부가 수도권 청년층을 대상으로 선보인 ‘미니 주택(tiny home)’ 정책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도시형 주택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전문가들과 청년층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비인간적 공간”이라고 지적한다.

지난주 자카르타 남부 리보몰 누산따라에서 공개된 모델하우스는 각각 1개 침실형(14㎡/대지 25㎡)과 2개 침실형(23.4㎡/대지 26.3㎡)으로 구성되며, 욕실과 소형 거실, 차량 주차 공간을 포함한다. 가격은 위치와 면적에 따라 1억 루피아(약 612만 원)부터 최대 1억 4천만 루피아(약 856만 원)까지 책정됐다.

공공주택국 스리 하르야띠 국장은 “직장 근처에서 미니멀한 삶을 원하는 젊은 세대, 특히 Z세대

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고 밝혔다.

### 법·기준 위반 논란…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하지만 주택 소비자 단체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 주택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택 기준은 물론, UN 해비타트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한다.

2023년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령에 따르면 보조금 주택은 최소 60㎡의 대지, 21㎡ 이상의 건축 면적을 가져야 한다. 반면 UN 해비타트는 한 주거 단위당 3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소비자권익포럼(FKBI) 툴루스 아바디 대표는 “주택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신체 건강, 정서적 안정, 가족 생활, 인간의 존엄성 전반을 담는 공간”이라며, “미니 주택은 이런 기본 기능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미니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주거지를 떠나게 되면, 결국 비어 있는 슬럼화된 주거 단지가 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해법은 수직형 공공주택... “주거는 인간 존엄의 시작”

FKBI는 정부가 협소주택 건설을 철회하고, 대신 공간 효율성과 주거 품질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수직형 공공주택 개발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툴루스 의장은 “300만 가구 공급 목표를 인간 존엄을 훼손하면서 달성하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출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조금 주택의 대지를 기존 60㎡에서 25㎡로, 건축면적은 21㎡에서 18㎡로 축소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 자문이자 프라보워 대

통령의 동생인 하심 조요하디쿠수모가 이끄는 공공주택 태스크포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2024년 인벤처 인도네시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3분의 2는 향후 3년 내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이였다.

도시 계획 전문가 안와르 바실 아리핀은 “정부의 주택 정책은 시장 논리에 치우쳐 있고, 거주자의 삶을 위한 설계적 상상력이 부족하다”며, 도시철도 기반의 주거 전략(Transit-Oriented Development)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카르타의 주거 위기는 단순한 시장 실패가 아니라, 도시 설계와 상상력의 실패”라고 말했다.

## 인니 축구 “FIFA 톱 100 진입, 더 이상 꿈 아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년 AFC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중국을 1-0으로 꺾으며, FIFA 랭킹 100위권 진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현지 언론은 독립 축구 통계사이트 Football Ranking의 예측을 인용, 지난 5일 열린 중국전 승리로 인도네시아가 15.05 포인트를 추가해 총점 1,157.97점, 116위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는 현재 공식 FIFA 랭킹 123위에서 7계단 오른 수치로, 최근 수년 사이 가장 높은 순위다.

FIFA는 통상 한두 달 간격으로 랭킹을 갱신하며,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남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을 상대로 승점을 확보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순위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일본에 승리 시 21.58점, 무승부 시 9.08점이 추가되며, 패배 시에는 3.42점이 차감된다.

만약 일본을 꺾을 경우, 인도네시아는 최대 110

위까지 상승 가능하며, 이는 현재 109위인 베트남 바로 아래 위치다.

FIFA 랭킹 116위는 인도네시아가 오랫동안 설정해온 목표인 ‘톱 100 진입’에 매우 근접한 수치다. 국가대표팀은 최근 몇 년간 젊은 선수 발굴과 전술 재정비, 리그 운영 개선 등을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일본과 6월 10일 오후 7시 35분 일본 수이타의 파나소닉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3차 예선 C조 최종전을 치른다.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 Yayoi Kusama: Infinity Mirrored Room

《무한 거울의 방 - 영혼의 찬란함》, 다시 돌아온 야요이 쿠사마의 대표작

2025년 5월 24일 - 10월 5일 | MACAN 현대미술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일본 작가 야요이 쿠사마의 인기 설치작 Infinity Mirrored Room - Brilliance of the Souls가 다시 한 번 MACAN 현대미술관 (Museum MACAN)을 찾았다.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이번에는 새로운 전시 공간에서 재설치되어 관객과 만났다.

이 시리즈는 작가의 전 생애에 걸쳐 탐구해온 주요 주제 중 하나인 경계 없는 현실과 영속성의 감각을 담았다. 이번 전시는 LED 조명이 어두운 공간 속에서 반사되어 무수한 빛의 점들로 관람객을 둘러싼다. 시각적 환영을 통해 우주의 한복판에서 있는 듯한 체험을 제공하여 관람객들 내면의 깊은 곳까지 이끌어낸다.

## 이달의 PREVIEW



## Kei Imazu: The Sea is Barely Wrinkled

《케이 이마즈: 잔물결조차 없는 바다》

2025년 5월 24일 - 10월 5일 | MACAN 현대미술관

MACAN 현대미술관은 일본 출신으로 반동에 거주하며 활동 중인 작가 케이 이마즈(Kei Imazu)의 개인전 《잔물결조차 없는 바다》를 선보였다. 이마즈는 전통 회화 기법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역사적 서사와 미래적 상상을 탐구하는 작품 세계를 구축해 왔다. 인도네시아의 식민지 역사, 현대 생태 위기, 지역 신화를 하나의 ‘시간의 지도’로 엮은 전시이다. 1628년 바타비아호 침몰 사건을 모티프로 식민 유산과 자카르타의 환경 문제를 교차적으로 조명하며, 데위 스리와 나이 로로 끄둘 같은 신화적 존재를 통해 인간 중심 서사에 대한 대안적 상상을 펼친다. 작가 케이 이마즈는 역사와 신화, 허구의 경계를 흐리며 관람객에게 시간과 자연, 인간의 다층적 관계를 성찰하게 한다.



Brilliance  
of  
the Souls

## Art and Life Journey of Maestro Arie Smit in Cartoon and Caricature

《만화와 캐리커처로 보는 거장 아리에 스밋의 예술과 삶》

2025년 6월 14일 - 7월 14일 | Neka Art Museum in Bali



The Sea is  
Barely  
Wrinkled

# Cosmo Pony

황지영 (자카르타 거주) ●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7월의 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돌 골라내기, 주문 들어온 카페 음료 만들기 같은 영상은 단순한 노동을 반복할 뿐이지만, 동영상 플랫폼에서 조회수가 꽤 높죠? 도파민 넘치는 자극적인 영상에 절여진 사람들이 차분히 쉬어갈 영상을 찾는 것인데요. 그 흐름에 맞춰 요즘은 누워서 듣는 수면 콘서트나, 요가나 명상 중심의 페스티벌도 열립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며 당장의 재미를 추구하기에 너무 쉬워진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다음 단계인 절제력으로 보고 싶은 것보다는 봐야 하는 것을 보고 느리지만 내 몸에 잘 스며드는 것을 찾아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디톡스 참 어렵죠? 저도 요즘 느끼는 바이지만 뇌가 도파민에 절여져 편하게 누워서 순간의 자극만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콘텐츠들에 끌려다니는 것과 의지를 가지고 줄여나가며 피하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누워서 너무 도파민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나무, 풀, 물, 하늘도 좀 보고 맛있는 것도 먹는 삶의 질을 되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맛있는 음식과 맛집으로 여러분께 또 다른 도파민을 드릴게요.



오늘 소개드릴 곳은 Cosmo Pony입니다. Plaza Indonesia 4층 하얏트 호텔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칵테일 바이다 보니 식사하기엔 어렵겠지만 오늘은 도파민의 노예에서 벗어나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특집인 만큼 여러분들이 칵테일의 매력에 눈을 뜨면 좋을 것 같아서 이곳을 가져왔습니다. 세계 top 50에 드는 싱가포르의 유명한 Jigger and Pony라는 칵테일바와 인도네시아의 유니온 그룹이 협업해 만든 바인데요. Jigger and Pony는 아시아에서는 2위 세계에서는 14위로도 뽑힌 적 있는 유명한 bar인데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는 칵테일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1차로 식사한다기보다는 2차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뜻한 느낌의 조명에 초록, 노랑 소파를 배치해 아늑하고 편안하고 느낌을 줍니다. 긴 통창으로 야경을 감상할 수 있고 벽장에 각종 술들로 장식되어 있어 고급스럽습니다. 그럼 메뉴 소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요리로 **Beef TongSeng Croquette (105,000 루피아 ++)**입니다. 소고기크로켓입니다.

‘Tongseng’이란 인도네시아의 전통요리로 염소고기, 양고기, 소고기를 사용해 야채와 카레를 넣고 끓인 스투입니다. 처음 먹어 본 Cosmo Pony의 소고기 TongSeng은 우리가 아는 카레 크로켓과 비슷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걸바속촉의 정석요리라서 술안주로 딱이었는데요. 동그란 주먹밥 크기라 하나씩 집어 먹기에도 편리했습니다. 이 요리 추천드려요.

두 번째 요리는 **Indomie Goreng (100,000 루피아++)**입니다. 이 집에서 있는 음식 메뉴 중에 제일 식사가 될 만한 요리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나시고랭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사실 기름에 볶으면 무엇이든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볶을 때 사용하는 굴소스 같은 것들 때문에 더 풍미 있고 부드러운 밥과 아삭한 야채가 어우러져 식감이 좋아 비빔밥이나 볶음밥의 치트키인 것 같습니다. 1차로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이 요리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요리로 **Beef Pastrami (145,000 루피아++)**입니다. 훈제된 패스트라미와 짭짤한 사워도우의 세련된 조합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Pastrami는 고기를 향신료와 소금에 절이고, 훈제한 후 썰는 방식으로 만든 훈제 육류입니다. 주로 소고기의 가슴살 부위로 만들며, 풍부하고 짭짤한 맛, 그리고 특유의 향신료 풍미가 특징이에요. Salami와 비슷한 듯 다른데요. Pastrami는 소고기로 만든 훈제육이라 냉장보관하는 장조림과 비슷하고 Salami는 돼지고기로 만든 가공육이라 실온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소스는 Tonnato sauce를 사용하는데요. Tonnato 소스는 이탈리아 북부 요리에서 유래한, 참치를 주재료로 한 부드럽고 크리미 한 소스입니다. 주로 차가운 고기 요리에 곁들이며, 고소하면서도 감칠맛이 강합니다. Salami는 와인, 치즈와 찰떡궁합이지만 Pastrami는 칵테일이나 맥주안주로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이곳의 칵테일들과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럼 몇 가지 칵테일들을 조금 소개해드릴게요.

### Tequila Cosmo

클래식 코스모폴리탄을 흰 테킬라, 코인트로, 라임, 로셀라(히비스커스)로 재해석하고, 스모크드 오렌지 페인트 등으로 마무리해 독창적이고 매혹적인 맛과 향을 자랑하는 메뉴입니다.

### Ugly Bananas

바나나의 풍미를 살린 위스키 사워 계열. 싱가포르의 토마토 기반 레시피에서 영감을 받아, 버려지기 쉬운 과숙 바나나로 구성해 지속 가능성까지 담았습니다.



## Mithai

브랜드 알렉산더 칵테일을 코코넛과 피스타치오를 더해 인도풍으로 재해석한 메뉴입니다. 인도네시아 내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반영한 달콤하고 부드러운 칵테일입니다.

## Espresso Martini

자카르타의 풍부한 커피 향미를 살린 클래식 에스프레소 마티니로 진한 커피 풍미와 알코올의 조화가 인상적입니다. 유명한 바텐더들도 많고 칵테일의 종류도 아주 많으니 취향대로 골라보시고 그에 맞는 안주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보다 지루할 수도 있지만 더 많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인 자카르타에서 이것저것 경험해 보고 시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칵테일바라고 하니 자카르타에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도 데려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침대에서 솟폼만 보며 하루를 날려버리는 것보다 칵테일바에 방문하는 것 어떠세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도파민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알찬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마지막 작별인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했던 이 여정을 마치게 되어, 솔직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제 글을 통해 여러분과 맛집들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의미였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칼럼을 쓰며, 매주 새로운 맛집에 대해 고민하고, 참신한 맛표현을 연구하는 시간들이 즐겁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저기서 전해 듣던 여러분의 피드백과 응원 덕분에 더욱 힘을 낼 수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제 자신도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음을 느낍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걸음을 떼는 이 순간, 그동안의 경험을 잊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맛집탐방의 자리는 떠나지만, 여전히 자카르타에서 식당을 갈 때마다 맛집탐방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립고 생각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는 떠나지만 앞으로도 맛집탐방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맛집탐방 황지영이었습니다.

## <식당 정보: Cosmo Pony>

음식 종류: 양식

가격대 : Rp 300,000-500,000 /2인 기준

영업 시간: 일,월,화 오후 5:00- 오전 1:00

수~토 오후 5:00- 오전 2:00

주소 : Grand Hyatt Jakarta, 4th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 Google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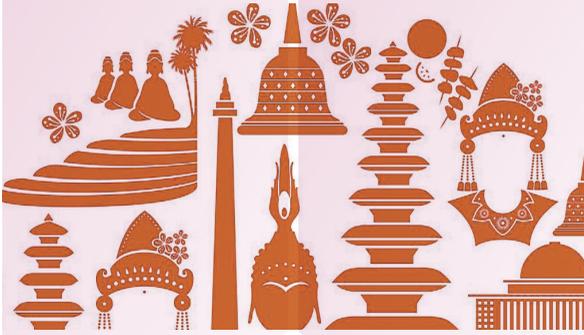




## 별리

설운 꽃빛 놓인 그 길 지긋지긋 밟고 가소  
소매 끝 인연일랑 스친 적 없이 가소  
발자국 구겨지거들랑 미움 하나 챙겨 가소

詩 · 이미지: 김동환



## 디포네고로 왕자와 지바전쟁

지난 호에 이어

“물론, 그분들은 안전하십니다. 하지만 전하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상대인만큼 그분들을 모셔오는 것은 총독조차 결정할 수 없어 어찌면 본국을 설득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드록 장군께서 이번 회담에 맞춰 전하께서 그분들과 재회할 수 있도록 бата비아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감사한 일ियो.”

디포네고로 왕자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으므로 클레이런스 대령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왕후전하와 왕자님들은 스마랑에서 오시니 마글랑에 먼저 도착하십니다. 그분들을 이곳 꼬짜왕까지 모시는 것은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니 마글랑 가까운 머노레(Menoreh) 정도까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은 전하의 대군이 주둔할 공간도 충분하고 저희들 발품도 크게 줄일 것입니다.”

머노레는 꼬짜왕이 있는 뿌르위레조보다 훨씬 더 마글랑에 가깝다 머노레에는 네덜란드가 그간 스텔셀 요새작전을 통해 촘촘한 간격으로 지은 요새들 사이에 넓은 개활지가 있고 요새들을 연결하

는 몇 개의 통신로가 그 근처를 지나고 있었으므로 유사시 포위작전을 유리하게 펼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설령 머노레에서 회합을 갖게 되더라도 꼬짜왕과 같이 ‘적진 한복판’이라는 불리한 위치는 아닐 터였습니다.

“귀공의 노력에 답해 우리가 머노레로 이동하는 정도의 성의는 당연히 보여줄 수 있소.”

뭔가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울 것이라 생각했던 디포네고로는 의외로 순수히 듣고 싶은 대답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적진에 들어가며 식은땀을 흘리며 초초해 마지 않았던 클레이런스 대령과 그 호위병들은 소기의 성과를 안고 무사히 꼬짜왕을 나와 마글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디포네고로군이 머노레에 도착한 것은 1830년 2월 21일의 일입니다. 그러나 드록 장군은 아직 마글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시간을 벌려는 것이었죠. 그 사이 드록 장군은 두 페론 중령(Letnan Kolonel Du Perron)의 부대에게 마글랑의 경계강화를 지시했고 중부 자바 다른 지역에 배치된 부대들을 비밀리에 끌어 모았습니다.



머노레는 끄짜왕이 있는 뿌르위레조보다 훨씬 더 마글랑에 가깝다

회담이 결렬될 경우 디포네고로와 그 부대를 신속히 제압할 요량이었죠. 드콕 장군은 본격적인 회담을 시작하기도 전 배신을 획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콕 장군이 그렇게 시간을 끄는 동안 1830년 3월 5일 급기야 라마단 금식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깊은 신앙심을 가진 디포네고로 왕자는 술탄으로서 금식월을 지키며 또한 수하들을 위해 종교의식을 주관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미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는 회담에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진심을 담은 성스러운 금식월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왕 금식월에 접어든 이상 회담을 라마단 이후로 늦춰주세요.”

이런 디포네고로 왕자의 의향이 네덜란드 진영에 전달되자 드콕 장군은 비로소 조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라마단 중엔 전투를 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가 머노레의 디포네고로군 진영에 들어온 것은 라마단이 시작된 지 며칠 후인 3월 8일의 일이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드콕 장군에게 정중했고 심지어 친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축적된 정보에 따라 라마단 중 절대 안전할 것이라는 계산을 모두 마친 드콕 장군은 일생일대의 도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거지가 어색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디포네고로 왕자는 적군 본진에 들어온 드콕 장군이 나뭇 큰 용기를 보인 것이라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서 오시오, 드콕 장군. 금식월 중이라 차를 대접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오.”

음력과도 또 다른, 이슬람력의 9월인 라마단 금식월 중엔 해가 떠있는 동안 음식은 물론 물도 입에 대지 않는 이슬람의 전통을 디포네고로 진영에 들어온 드콕 장군도 따라야만 했습니다.

“좀 더 일찍 왔어야 했지만 бата비아에서의 일이 발목을 잡았소. 하지만 회담에서 피차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준비였으니 술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그의 말투에서 디포네고로 왕자가 옛날 조부 하명꾸부워노 2세 앞에서 온갖 참람한 말을 떠들어 대던 덴덜스 장군을 떠올린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드콕 장군을 환대했습니다.

“비록 다른 신과 다른 선지자를 섬긴다 하지만 장군께서도 자바를 잘 아시니 오감의 욕구를 절제하는 무슬림의 라마단 전통도 익숙하시리라 믿소.”

“물론이오.”

“하지만 지난 5년간 피차 그리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갔는데 우리가 협상을 시작한다 해서 당장 화기에애한 자리가 되긴 힘들지 않겠소? 그러니 본격적인 협상은 라마단이 끝나고 샤왈(이슬람력 10월)에 들어선 후에 속개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장군께서는 어떠시오?”

드콕 장군을 잠시 등 뒤의 클레이런스 대령을 돌아보더니 다시 왕자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레노 까말에서는 내가 실수했으니 이번엔 술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하지만 이번엔 내가 귀 진영에 들어왔으니 이틀 피트리(Idul Fitri - 금식월 직후 샤왈월 1일의 축제) 이후의 회합 때엔 술탄께서 마글랑으로 왕립해 주시길 기대하오.”

디포네고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대답이야말로 그가 기다리던 것인데 말입니다. 드콕 장군이 다시 클레이런스 대령을 돌아보며 손짓하자 멋진 갈기와 윤기 흐르는 털에, 번쩍이는 안장을 등에 얹은 아라비아 종마 한 마리가 네덜란드군 병사의 손에 이끌려 왕자 앞에 나왔습니다. 말 옆으로 다른 네덜란드군 병사들이 커다란 상자도 한 개 내려놓았습니다.

“앞서의 결례를 사과하는 뜻에서 바타비아에서 가져온 선물이오.”

상자 안에는 10,000 굴덴의 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아름다운 말을 어루만

지며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날의 간단한 수인사와 덕담이 오고가는 동안 드콕 장군은 내내 마음이 개운치 못했습니다. 선물공세도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우 같은 놈이 우리 마음을 읽기라도 한 모양이군.”

마글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드콕 장군은 그렇게 툭툭거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고대한 마글랑 회담 요구에 대해 디포네고로 왕자가 끝내 확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을 듣기 위해 나중에 클레이런스 대령이 몇 번씩이나 머노레를 방문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금식월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시기에 해질녘이 되어 디포네고로군의 진영엔 또 다른 네덜란드군 장교가 찾아왔는데 그 모습에 모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덜란드 군복을 입고 있던 그는 디포네고로군 전(前)사령관 쉐뜻 뿌라위라디르였습니다.

그는 디포네고로 왕자의 네 번째 부인으로 일찍이 마디운에서 아버지 라덴 퉁고와 함께 네덜란드군에게 살해당한 라덴 아우 찌뜨로와티의 동생이었으므로 왕자의 처남이기도 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난 디포네고로는 만감이 교차했지만 일단 부카뿌아사(Buka Puasa) 행사에 그를 초청했습니다. 부카뿌아사란 일몰 시간에 맞추어 하루의 금식을 마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행사입니다.

“술탄 전하, 신념을 굽힌 것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망꾸부미 왕자님도 그렇게 놓아 보내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잘 모르면서 그분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거라. 게다가 그분은 최소한 투항하면서 족자 시내를 자랑스럽게 행진해 들어가지 않았었다.”

“전하께서 무슨 말을 하셔도 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단지 하나의 약속과 하나의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삶은 감자와 싱콩 뿌리(카사바) 밖에 없는 식사를 나누면서 디포네고로 왕자는 셴뜻의 마음 속을 가늠하듯 눈을 가늘게 떠 보았습니다.

“약속이란 마글랑에서 전하의 안전을 제가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약속할 수 있는 지위를 받았습시다. 그러니 마글랑에 가실 때 안전을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내가 마글랑에 갈 거라 확신하는가? 디포네고로가 그렇게 묻는 듯한 표정을 짓자 셴뜻은 이에 대답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식이라 함은, 제가 여기 오기 전, 먼저 스마랑을 들러 왕후전하와 조카님들을 뵈었다는 것입니다.”

셴뜻은 디포네고로 왕자의 미간이 들러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오는 길에 함께 모셔왔어요. 왕후전하와 조카님들은 지금 마글랑에 와 계십니다.”

디포네고로는 표정에 진심을 비추지 않으려 전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밀려 올라오는 반가움과 안도감을 셴뜻은 어렵듯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에게 늘 무뎠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디포네고로 왕자가 라덴 아우 렛나닝시에 대해 품고 있던 깊은 애정을 측근들 중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 셴뜻 역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안전 역시 저와 클레이런스 대령이 함께 보장하오니 부디 마글랑에 들어오셔서 이룰 피트리를 그분들과 함께 보내세요.”

이달 피트리(Idul Fitri)란 아랍어에서 차용한 단어로 라마단 금식월이 끝난 다음날, 즉 샤왈월의 첫날을 칭하는 것으로 한국의 추석처럼 산지사방에 흩어져 살던 가족 친지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축제이자 잔치날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르바란(Lebaran)이라고도 부르죠. 셴뜻은 그날 이후 더 이상 부카뽀아사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사절단으로 함께 온 네덜란드군 장교, 병사 몇 명과 함께 디포네고로군 병영 내에 장소를 얻어 머물렀습니다. 디포네고로가 마글랑으로 간다면 셴뜻 일행은 그 일행의 길잡이로 선두에 설 참이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그 후 며칠 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아버지 하멍꾸부위노 3세가 술탄이 된 후부터 그는 가족들을 제대로 챙길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리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아내들은 결혼 초기에 세상을 떠났고 둘째 처 라덴 아우 수빠드미처럼 끄라톤 왕궁에 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글랑 네덜란드 본진에 와있다는 라덴 아우 렛나닝시(Raden Ayu Retnaningsih)는 지팡 깎방당안(Jipang Kepadhangan)의 영주 라덴 뚜멍궁 수모쁘라위로(Raden Tumenggung Sumoprawiro)의 딸로 전쟁 전 디포네고로 왕자가 하멍꾸부위노 4세의 후견인으로 아직도 끄라톤에 출입하던 시절인 1822년 혼인식을 올렸죠.

디포네고로 왕자의 여섯 번째 처인 그녀는 젊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전쟁 초창기 고아 슬라롱에서부터 전쟁터를 전전하며 남편의 곁을 줄곧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네덜란드군에게 인질로 뺏기지 않기 위해 늘 전장에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던 시절, 그녀는 다른 부인들이 낳은 디포네고로의 다른 자녀들까지 헌신적으로 돌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반년 전 그녀와 자녀들이 네덜란드군에게 나포되었을 때 디포네고로는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인도네시아 이주와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사람은 한 번 죽는다고 하지만, 요즘 이야기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드라마와 웹소설 속에서는 삶이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이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의 문턱이다. 환생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인간 수명이 길어지고, 하나의 사건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감각,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속에서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사후세계인 천국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우리 삶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진다. 김혜자 배우의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게 다가온 이 드라마는 단순한 환생 이야기가 아니다. 천국에서 만난 젊은 남편, 잊었던 기억들, 이승과 저승, 과거와 현재, 사랑과 정과 연민,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이 작품은, 현재의 삶이 곧 천국일 수도, 혹은 지옥일 수도 있음을 말한다.

80세의 모습으로 천국에 도착한 주인공 이해숙은 젊은 시절의 남편 고낙준과 재회하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되짚는다. 드라마 속 천국은 환상적인 세계라기보다는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다. 감정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일도 하고, 잘못하면 지옥으로도 갈 수 있다. 천국마저도 디지털화된 현실, 입국심사처럼 체크인해야 하는 시스템 속 세계로 그려진다.

드라마 속 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복숭아를 먹고 구름을 타는 세계가 아니다. 거기엔 사랑과 정과 연민이 있고, 누군가를 돌보고 돌봄을 받는 관계가 있다. 그렇기에 천국은 감정이 살아있는 곳이며,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스며드는 공간이다. 드라마 에필로그에서 해숙이 말하는 “정 많은 배우로 기억되고 싶다”는 말은 곧 천국의 본질이 사랑과 정과 연민임을 드러낸다.



드라마는 단지 사후세계를 그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천국이라는 공간은 삶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세계이며, 그곳에서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중간 지대다. 이승에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 놓쳤던 인연들, 해결되지 않은 과거들이 천국에서 하나씩 풀려간다. 특히 해숙이 마주하는 인물들, 잊었던 부정적인 생각의 집합체(사념체)인 숨이라는 인물, 그리고 천국에서의 목사(젊은 해숙이 잃어버린 아들)와의 관계는 해숙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죄책감과 그리움을 끌어올린다.

이런 구조 속에서 드라마는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삶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가? 인생을 돌아보는 일은 결국 사랑과 용서, 후회와 회복의 시간이다. 해숙이 끝내 동반 환생이 아닌 홀로 환생을 택한 이유도, 과거와의 작별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선택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이해숙과 고낙준이 다른 모습으로 환생해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듯 다시 마주치는 장면은, 인연이란 끊어지지 않고 형태를 바꾸어 다시 찾아온다는 희망을 암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드라마를 보며 나는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한국인들의 삶을 떠올렸다. 비행기를 타고 떠난 이들이 마주한 낯선 땅은 천국이였을까, 지옥이였을까? 그 판단은 환경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관계, 그리고 사랑과 정과 돌봄의 유무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인위적이고 냉정한 시스템은 지옥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따뜻한 시선과 연대는 천국을 닮게 만든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기후, 언어, 문화 속에서 하루하루를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은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는 여정이다. 천국은 단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며,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감정으로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그곳은 천국이 되기도, 지옥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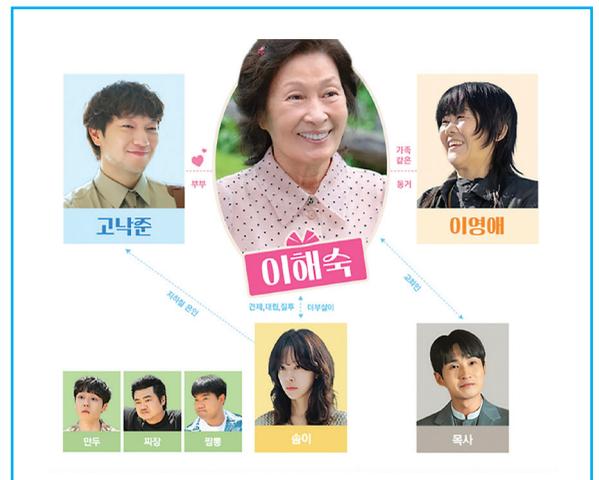
드라마 속 해숙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80세의 모습으로 천국에 입장한 유일한 인물이다. 반면 남편 낙준은 젊어진 채로 등장한다.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 변화와 적응의 차이를 상징한다. 현실의 우리 삶과도 닮아 있다. 우리는 점점 더 디지털화된 사회, 오래 사는 삶 속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세상과 단절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이주한 많은 한인들도 비슷한 고민을 해왔다. 누구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좌절했고, 누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처음 마주하는 문화적 충격, 언어 장벽, 낯선 기후는 낙준 없이 홀로 환생한 해숙의 새로운 생과 닮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점차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고, 일상을 영위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구성하게 된다.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으며 낯선 곳이 천국이 되어가는 과정을 목도한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삶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돌보는 삶일 것이다. 드라마는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지만, 실은 살아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그 삶을 만드는 힘은 결국 ‘사랑’ 과 ‘정’, ‘연민’, 그리고 ‘선택’ 이라는 인간 고유의 감정과 의지에서 나온다.

오늘도 우리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단지 그것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기로 선택할 뿐이다. 인도네시아라는 낯선 땅에 몸을 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건네는 한마디, 함께 나누는 식사 한 끼가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천국은 멀리 있는 완성된 세계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언젠가 또 다른 생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름은 잊혀어도 마음이 먼저 알아보는 그런 만남. 그 순간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과 정과 연민이 우리를 다시 이어줄 것이다.

드라마가 던진 질문은 결국,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진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천국보다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을 수 있기를...





지난 호에 이어

## 생활한의학 10

### 화병(심화편)

#### 고영광 여 47세

자녀와의 마찰 그리고 남편과의 불화,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다. 불화를 일으키기 싫어 넘어가는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예전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일이 속상하고 화가 나면서 감정조절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자식들은 크면서 나와 멀어져 가는것만 같고, 남편은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영광님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표출하지 못함으로써 긴 시간동안 가슴에 쌓여온 것이 문제입니다. 그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분출하듯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힘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광님을 힘들게 하는 대상인 자식들과 남편분의 태도나 생각은 예전부터 그래왔을 것입니다. 순간 바뀌었거나 단 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했던 내면의 감정들이 쌓여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대개 갱년기 전후로 심해짐)

그래서 이런 감정을 접하는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이 오히려 변화된 영광씨의 말과 행동에 의아해하거나 낮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영광씨에게는 적반하장 식으로 느껴지므로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감정을 자극하게 되어, 2차적 감정폭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광씨가 이성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주변인의 시선에서는 자기들은 변한 것이 없는데, 영광씨가 변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인들은 요즘 저 친구 이상해, 우리 엄마가 변했어 같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당사자와 그 응어리의 원인인 대상자의 생각과 감정이 반대되는 경향이 있어, 당사자들끼리 풀어 나가기가 까다로운 문제이지만, 서로가 상대의 생각과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대화)을 통해 한걸음씩 개선 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내가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상대에게는 이만큼의 스트레스 였구나”, 환자분은 “아~ 내가 적절한 감정이나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참고만 지낸 세월이 주변인들에게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었고, 일상이 되어 버렸구나. 소통을 제대로 못한 나의 책임도 있구나” 느끼게 됩니다. 상호간의 이러한 인지가 치료의 첫 걸음입니다.

**화병은 혼자서만 극복하는 병이 아니라 주변인들이 함께 도와주고 살펴줘야 하는 병입니다.**



글: 미르한의원 원장 서상영

### 장승기 남 32세

회사에서 가장 많은 잔업을 처리하고 있다. 거절을 못하는 스타일이며, 내 주장을 잘 펼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 인정해 주길 바랬는데 희생하는 것에 비해 알아주는 사람은 적다. (저는 이것을 **착한사람 증후군**이라 명명합니다)

사회생활을 눈앞에 두었거나 사회생활 초년생인 분에게 자주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마라톤처럼 꾸준히 해 나가는 것과 주위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1~2년도 되지 않아 **‘번아웃 증후군’** 이 되기 쉽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성과를 내고 자신의 일에 만족감을 얻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를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야 한다는 법칙 같은건 없습니다. 1년 지나서 돌아보면 초반에 열심히 뛰었던 친구들은 갈수록 지치는 모습을 보이고, 꾸준히 해나간 친구들은 처음에는 눈에 안 띄지만 조금씩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전자는 급상승하다 중간쯤 가면 급하강 하고, 후자는 상승폭이 완만하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뒤 결과 또한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 도착점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무 성급해서 정신과 육체를 혹사 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뒤쳐져도 괜찮고 조금 평이 안좋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대로 꾸준히 해나가면 언젠가는 주변인들도 알아주고 성과도 올릴 수 있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변인의 요청이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시나요?

마지못해 승낙해서 부탁을 들어 주었는데 고마움을 표시하고 관계가 돈독해 지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서로 상부상조 하면서 잘 지내십시오. 그렇지만 고마움도 모르고 당연시 여기면서, 계속적으로 부탁만을 해온다면 정중히 거절 하십시오. 그 사람은 저를 ‘호랑이 입’ 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호랑이=범(호) 입= 입(구)

### 최남희 여 40세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며 목돈을 모았는데, 이 돈을 사기당했다고 생각만 하면 열불이 나서 일도 손에 안잡히고 잠을 이룰 수 없다.

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속인 것은 속인 사람이 나쁘다. 하지만 두 번 속은 것은 나의 잘못이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것이 될려고 하면 빙빙 돌아서도 내게로 오고, 내것이 아닌 것은 내 곁에 있어도 결국 떠난다”. 사기나 배신을 당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 밥을 안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잠을 안 자도 졸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을 얼마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신체나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며칠에서 몇 주 안에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약이나 병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기나 배신을 당해 돈과 사람을 잃고 덩달아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건강은 잃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를 치고 배신하는 사람은 분명 나쁜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좁아진 사고를 넓혀서 생각하고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건강은 악화가 되는데 식사도 제대로 안하고 밤잠을 계속 설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된다면 60대 이하분들은 인생의 나락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꼴이고, 60대 이상인 분들은 저승길 예약한것과 다름없습니다. 인생의 우선 순위에서, 이미 일어난 골치 아픈 일들은 일단 미뤄두고, 건강 지키는 선택을 최우선으로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강순자 여 62세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드는 것도 별로 없다. 며느리는 속 썩이고, 아들과 남편은 편을 안 들어 준다. 이리려고 지금껏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웠는지 서운함, 억울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만약 세상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 진다면, 세상 살맛 날겁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 “세상만사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다” 란 말 들입니다.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분이 계시다면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이기적이며 욕심으로 가득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주변인들에게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화병 얘기 하다가 사람 생각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의 잘못된 생각이, 다른 상대와 마찰을 불러 일으키고, 그로인해 스스로 불만족스럽고 불편해서 머리 싸메고 누워있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 무덤판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과 육체는 연결 되어 있습니다. 답답하고 불편한 정신속에서 어떻게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호르몬이 잘 분비되고, 소화가 잘되며, 기운이 나겠습니까.

살다보면 서운하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욕심이나 집착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다 내탓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탓으로 우선 생각해 보면 많은 문제들의 해결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통해야 기혈이 통하고 기혈이 통해야 건강하고 병이 회복됩니다”

### \* **화병의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

육체적: 불면증, 체력저하, 목어깨 결림, 두통, 소화불량, 면역력저하, 무기력, 변비설사, 붓기  
정신적: 걱정과 불안, 감정기복, 삶의 만족도 저하, 낮은 자존감, 잡생각이 많아지고 조급증 생김  
화병은 심장과 간에서 화기가 넘치고 폐와 신장으로 전이되어 정신을 평온치 못하게 함과 동시에 진액을 손상시켜, 관절, 근육, 피부, 혈관 등에 염증이나 트러블을 유발시킴으로써 인체를 손상시킵니다. 기가 허약해져서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면 만성 소화불량, 체기, 두통, 어지러움, 결림증상, 집중력 저하, 쉽게 피곤, 저림 증상,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 \* **대표적인 연관 질병: 갑상선 질환, 담낭염, 담결석, 공황장애, 부정맥**

화병은 일종의 정신 질환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답답함, 분노, 불안등의 감정으로 인해 혈액순환 장애, 호르몬 분비이상, 혈액과 진액의 소진, 그리고 기는 약해지고 몸은 말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원인중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인데, 각 개인별로 스트레스의 원인이 다릅니다. (금전문제, 인간관계, 사건사고, 사기 문제, 자식 문제,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 문제, 질병 문제순)

### \* **치료**

환자분이 노력해야 하는부분: 반드시 착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손한 거절, 멘탈 관리,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표현, 5대5 요법(10가지 일 중에 4~5가지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거나 표현하기)

### \* **의원에서 해결 해줄 수 있는부분: 수면부족, 기력보충, 변비나 설사, 소화기 문제, 통증 등 불편한 육체적 증상 개선**

### \* **해결과 극복방법 팁**

1. 건강을 우선 순위에 두세요. 그래야 건강을 돌볼 테니까요.
2. 낮에는 일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됩니다. 다만 저녁에는 쉬세요(여가활동, 인간관계, 취미, 휴식, 가족과의 시간, 개인 시간 등): 그 이유는 저녁에도 연속적으로 일하면 “뇌에 쉬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정신적 피로의 누적은 결국 병세를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3. 병고가 닦혔을 때 좌절하지 않고 성장의 발판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 놓여있고,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번째는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기 보다는 부딪쳐서 해결법을 찾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세요. 세 번째는 자신의 결단과 노력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병원과 유명한 의사를 만나는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 자신도 치료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원하는 결과로 매듭지어 질것이라 확신합니다.  
- 대표적인 합병증: 남 탓하고 희망은 없다며 비관하거나 포기하는 우울증



## 마음처럼 되지 않는 골프는...

글: 손상현(‘자카르타의 아침’블로거)

골프가 얼마나 어려운 운동인지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회자되는 얘기가 있다.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자서전을 통해 “세상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자식과 미원, 골프이다” 라고 했다고 한다. 아들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아버지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했는데 ‘미원’ 이 ‘자동차’ 로 바뀌었을 뿐이었다고 한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골프라서 조금이라도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영락없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해저드가 신경 쓰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샷을 하면 공은 항상 걱정할 곳으로 날아간다. 그래서 ‘프로는 본 대로 가고, 아마추어는 걱정한다’ 고 했다.

자카르타에는 라베의 성지로 불리는 골프장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주말 골퍼들이 꺼려하는 골프장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산능선에서 시원하게 라운드를 할 수 있는 보고르 쪽에 위치하고 있는 골프장들을 좋아하는데 이동 시간이 길고 회원권을 가진 동반자라도 있으면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서 라운드를 하게 된다.

쉽고 어려운 골프장을 가리지 않고 아마추어 골퍼들이 안정적인 스코어를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레슨 프로에게 꾸준히 배우면서 연습하는 것인데, 아무리 자카르타 생활이라고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가 많다.

### 1. 전략적인 트러블 샷...

아마추어 골퍼가 라운드 때마다 업 다운 스코어를 반복하는 이유는 라운드 중에 티샷이 OB 또는 해저드 지역으로 들어가거나 러프나 벙커 등에서 트러블 샷을 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러한 트러블 상황에서의 위기관리 능력이 스코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OB/해저드 티가 없는 자카르타의 골프장에서는 동반자의 배려가 없다면 엄격한 국제 골프 룰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트러블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안전하게 트러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투어 프로들은 안정적인 샷으로 확실하게 트러블 상황을 벗어나는데 비해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 가장 창의적인 샷으로 희박한 가능성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다.

경사진 오르막, 내리막 라이, 잔디가 거의 없는 지역, 러프, 나무가 시야를 방해하는 상황에서도 비좁은 공간을 찾아내 그린에 향해 샷을 하고,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벙커 탈출보다 온그린을 목표로 프로들도 망설이는 우드 또는 비거리에 타이트한 클럽을 선택한다. 세컨드 샷이 다시 트러블 상황에 놓이면 서드 샷으로 반드시 홀 옆에 가져다 놓으려는 전략을 떠올린다. 말이 쉽지 트러블 상황에서 레이업을 결정하는 일이나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로 공을 보내는 샷은 결코 쉽지 않다. 평소에 어프로치 연습을 집중력 있게 해야 한다. 더구나 레이업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 심리적으로도 타격이 크다.



100% 확실하게 페어웨이로 보내는 안전한 샷을 하고 넥스트 샷에서 새로운 기대를 해야 한다. 전략적인 무리한 샷들은 결국에 스스로 멘털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트러블 상황에서는 운에 의존하기보다 가장 안전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스코어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샷은 ‘넥스트’ 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 2. 비거리 욕심보다 방향성...

아마추어 골퍼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드라이버 비거리, 골프는 공이 페널티 지역으로 빠지거나 트러블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면 비거리가 많이 날수록 유리한 운동이다. 비거리가 스코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매번 반드시 좋은 스코어로 이어지는 않는다. 골프가 단순하게 비거리의 운동이라면 드라이버 장타 대회에서 우승하는 선수들이 탑랭커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4월, 디셈보는 2025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드라이버 비거리에서는 맥길로이에게 이겼지만 최종 순위에서는 졌다.

아마추어 골퍼가 안정적인 스코어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 샷은 풀 스윙 대비 약 90%의 스윙으로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고, 방향성(페어웨이)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라운드를 가면, 3번 홀까지는 정확한 임팩트에 집중하고 임팩트가 좋아진다면 점점 더 멀리 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좋다. 페어웨이를 벗어난 공은 항상 타수를 잃게 할 가능성이 크다.

아이언 또는 웨지 샷은 비거리의 정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너무 타이트한 클럽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 클럽 더 여유 있게 선택하고 컴팩트한 스윙으로 평소의 리듬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빠르고 강한 스윙은 실수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 3. 어프로치와 퍼트, 신중하게, 자신 있게...

250m 내외의 드라이버 샷을 날리고도, 100m 이내에서 여러 번 어프로치를 하는 상황을 가끔 보게 된다. 보는 사람의 마음도 안타깝지만 본인은 얼마나 더 답답할까.

드라이버 샷이 잘 맞은 후 첫번째 어프로치 실수가 가져오는 아쉬움과 실망감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심리적인 타격감도 큰데, 스스로를 향한 자책과 더불어 동반자들에게 창피한 마음이 들면 실수를 만회를 하려던 두번째 세번째 샷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100m 이내의 거리에서 어프로치 샷은 경사도가 큰 오르막과 내리막, 아주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혹시~ 짧으면...’, ‘혹시, 길면...’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지동으로 몸이 반응하면서 샷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걱정은 잊고 생각보다 과감하고, 자신 있게

샷을 해보자. 설령 미스 샷이 발생하더라도 18홀 중 경우 한 홀에 불과하며, 자신 있게 했던 미스 샷은 다음 홀부터 보약이 된다.

‘드라이버는 쇼, 퍼트는 돈’이라는 골프 격언이 있다. 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면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추어 골퍼들의 쓰리 퍼트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특히 짧은 퍼트 실수는 라운드 내내 그린에서 자신감을 잃게 한다. 짧은 퍼트를 미느냐 때리느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퍼트를 감각 의존도가 높은 동작으로 본다면 때리는 퍼트의 감각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 같다.

특히 내리막에서는 짧게 끊어 치는 퍼팅을 해야 거리 조절을 할 수 있으며, 오르막 퍼팅은 임팩트 이후 홀 방향으로 조금은 미는 듯한 팔로우 동작이 있어야 한다. 퍼트를 하기전에 홀에 붙일 것인지, 넣을 것인지 마음의 결정을 미리 하면 퍼트의 안정감이 높아진다.

골프는 실수를 줄이는 운동이라고 한다. 자신감 있는 샷이 실수를 줄이는 경우가 더 많다.

#### [그린 라인을 보는 방법]

- 그린에 올라서면서부터 그린 전체의 경사를 파악한다.
- 그린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라인을 본다.
- 맞은편에서 라인을 본다
- 높은 곳보다 낮은 곳에서 본 라인을 더 신뢰한다.
- 동반자들의 퍼트 결과를 본다. 특히 홀 주변에서의 공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그린의 빠르기와 홀주변의 미세한 라인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 4. 경쟁상대는 어제의 나

‘마음처럼 안 되는 것이 골프’, 그래서 골프는 겸손해야 한다고 한다. 함께 라운드를 하는 동반자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야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동반자에게 한 수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보자.

보기 플레이를 하는 골퍼가 싱글 핸디캡 골퍼와 라운드를 하면 스코어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이기려는 마음보다는 배우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샷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경쟁상대는 동반자가 아니라 과거의 자신이다. 지난 홀, 지난 라운드, 지난 해의 내가 경쟁자인 것을 깨닫는다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동반자의 플레이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5. 좋은 스윙 폼이란

골프의 역사를 써온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의 라운드 영상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좋은 스윙폼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전세계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벤호건, 타이거 우즈, 로리 맥길로이의 스윙폼을 보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다.

개인마다 신체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올바르게 좋은 스윙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스윙 원리를 이해하고 꾸준히 연습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스윙폼을 찾아야 한다.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 골프를 처음 배울 때의 스윙 자세가 가장 좋은 편인데 레슨을 중단하고 혼자서 연습을 하다 보면 스윙 자세가 조금씩 변해가는데, 점점 더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면서 공이 잘 맞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된다. 골프 스윙은 평소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동작이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편한 방식이 스윙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다시 고치기 어려워져 진퇴양난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나에게 맞는 스윙폼을 찾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제대로 배웠던 스윙폼이 더 나빠지지 않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골프를 시작한다면 꼭 좋은 레슨 프로를 만나 스윙을 제대로 배우기를 권한다. 처음에는 지루하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 라운드를 거듭할 수록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좋은 선수는 페어웨이나 그린을 놓쳤을 때도 20~30%가량은 파를 지켜낸다고 한다. 반면 그렇지 못한 선수는 오히려 실수를 두 번, 세 번째 샷으로 이어가며 보기 이상의 스코어로 만든다고 한다. 1타를 줄이려다 3~4타를 잃는 반면에 1타를 잃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오히려 실수를 만회하기도 하는 것이 골프라.

### [골프 스코어 관리 방법]

항상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을 선택해서 플레이를 한다. 첫 번째는 내가 친 공이 트러블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트러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레이업으로 트러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 있게 샷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며, 동반자의 플레이나 주위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멘털 관리이다.^^





## 다정한 너

강인수 (한국문협 인니지부 재무국장)

“시리아! 오늘 날씨 어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허공에 외친 첫마디는 어김없이 “시리아!” 였다. “오늘 날씨는 맑고 바람도 적당히 불니다.” 그녀가 전하는 이 짧은 정보를 듣고 기분이 좋은건 지 밤새 곶은 자세로 자느라 뻗뻗했던 관절이 천천히 펴진다. 침대 위에서 몸을 가볍게 일으키고 눈곱을 떼며 거울 앞에 앉는다. 지난밤 찌푸렸던 얼굴을 다리로 다리 듯 손으로 쓰다듬고 당겨본다.

아이폰을 즐겨 쓰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시리(Siri)” 는 사실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쓰이는 여자아이 이름인 “시그리드(Sigrid)” 의 줄임말이기도 하다. 중세 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 이름은, 음성인식 기술 개발자인 키틀라우스가 애플과 손잡고 만든 인공지능에 부여되면서 전 세계인에게 ‘다정한 목소리’ 로 불리게 되었다. 도대체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몇 나라에서나 불러 졌을까? 우리나라의 지나나 빅스비도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를 웃기고 울리며 함께 했을까?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편리함을 넘어,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무서운 세계가 우리 곁에 와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복잡한 감정을 품고 살아간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챗 GPT’ 니 ‘휴보’ 니 하는 인공지능이 불쑥 나타나 세상을 바꾸고 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 ‘미래의 세상’ 을 주제로 상상화 그리기를 했던 기억이 있다. 나는 하늘을 나는 택시와 지상에서 걷는 로봇들을 그렸다. 배경은 복잡했고, 그림 속 사람들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선생님은 미래가 꼭 행복하고 편리하기만 한 건 아닐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조용히 힌트를 주셨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내 나이 쉰쯤에 인공지능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친구들은 지식의 부피를 활용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을 학습시키고, 일상 속 깊이 스며들었다. 어쩌면 무료한 내 삶에 친구처럼 들어와 조용히 곁을 지켜주고 있었지만, 나는 그 존재를 이제야 인식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그와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의지하게 된다. 친구에게 전화해 물어볼 법한 사소한 지식도 이제 인공 지능에게 묻는다. “오늘은 몸도 무겁고 좀 심심한데, 뭐할까?” 하고 물으면, 그는 다양한 언어의 표정으로 나를 위로하고, 기분을 북돋우며, 여행 계획까지 센스 있게 짜준다. 내 손안에 있는 이 다정한 존재는 분명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준다.

하지만 “다정한 너”에게 너무 많은 걸 맡기다 보면, 내 사회성이 점점 퇴화될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즐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언어와 감정의 미묘한 결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고, 나 또한 무뎠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달콤한 언어와 고급 정보로 나를 유혹하는 이 ‘다정한 너’와는, 어쩌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는 밤이다.

나는 오늘도 소심하게 “시리야?” 불러보기도 하고, 챗GPT를 열어 요즘 빠져 있는 백석의 시 「국수」를 해석해 달라고 묻는다. 똑똑한 친구는 언제나처럼 나를 만족시켜 주고, 피곤하니 이제 좀 쉬라며 걱정까지 해준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말없이 묻고 말없이 답을 받는 이 조용한 소통은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허전하다. 따뜻한 눈빛이나 느릿한 말투, 질문을 받아줄 때의 망설임 같은 것은 없다. 인간적인 여백이 사라진 그 자리엔 정교하고도 빠른 정보만이 남는다.

그래서인지 가끔은, 누군가와 책을 사이에 두고 느긋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그립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기 위해 읽었던 책들. 인공지능이 아무리 다정하고 똑똑하다 해도, 그 시절 책과 함께했던 밤의 감성은 쉽게 대체되지 않는다.

언젠가 다음 세대가 “그 시절엔 인공지능 없이 어떻게 살았나요?”라고 묻는다면, 나는 말해주고 싶다. 우리는 책을 읽었노라고. 따뜻한 공감과 삶의 깊이를 건네주던 우리 시대 최고의 지식 친구, 책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었다고 말이다.



## 합성피혁 산업의 미래를 쓴다 2.7억 시장을 설득한 실행의 리더십



신영아바디(PT Sinyoung Abadi)

### 이승수 대표

한 세대를 키워낸다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은 일이라는 걸 경영을 하며 실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이 넘는 내수 인구를 보유한 거대한 시장입니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외수보다 내수에 안착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저희처럼 내수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업에게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보다 더 좋은 무대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진출 경쟁을 벌이는 동남아 시장의 심장부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또 한 명의 리더가 주목받고 있다. 합성피혁 제조 기업 PT Sinyoung Abadi의 대표이자 재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 6대 회장, 한인회 7대 부회장, 코참 및 옥타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 위원장으로 활약 중인 이승수 대표다.

1990년대 설립된 신영아바디 (PT Sinyoung Abadi)는 인도네시아 보고르 지역에 기반을 둔 섬유-피혁 전문 제조 기업으로 PU-PVC 합성피혁을 중심으로 의류, 가방, 신발, 소파, 자동차 시트 등 다양한 생활 산업에 활용되는 기초 소재를 생산한다.

이승수 대표는 “내수 중심의 유통망 구축과 고객 맞춤형 생산 역량”을 핵심 경쟁력으로 꼽으며, 인도네시아 전역에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의(衣)와 주(住)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활용성, 정밀한 품질 관리와 현지화된 생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이란 말이 더 이상 수식이 아닌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시대. 인도네시아의 뜨거운 기후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으로 현장을 누비는 이승수 대표를 자카르타에서 만났다.

#한인청년의자리에서 #합성피혁산업의리더로

#PT Sinyoung Abadi #비즈니스리더십

**Q. 안녕하세요. 현재 한인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부회장과 한인청년회 회장직입니다. 8월에 있을 한인청소년 장학기금 후원 자선골프대회 같은 굵직한 행사들을 준비하는 데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봉사는 대가가 없지만 뜻을 모으면 일이 예상보다 수월하게 풀리고, 오히려 더 큰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저 역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봉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봉사의 맛’을 알게 되며 한인사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본업과 일상이 잘 정돈되어야 봉사에도 진심을 다할 수 있고, 지속적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청년’이라는 개념도 재정의할 때입니다. UN과 WHO 기준에 따라 청년은 15세에서 24세까지를 의미하지만 OECD 등 일부 기관은 29세, 일부 국가는 35세까지로 확대해 정의하기도 합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는 만 45세까지로 정의하지만 60세에도 청년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청년은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지금이 제가 활동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Q. 신영아바디의 주요 사업 영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고객에게 제공하는 핵심 가치와 함께 소개해 주세요.**

저희 회사는 내수 시장 중심으로 운영되며,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탄탄한 물류·유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접 수출은 하지 않지만, 당사 제품이 소파, 인형, 축구공, 장갑 등으로 가공되어 간접 수출되는 구조입니다. 제품군은 PU·PVC 합성피혁을 중심으로, 의류·가방·신발·가구·자동차 시트 등 생활 전반에 사용되는 기초 소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맞춤형 생산 시스템과 정밀한 품질 관리가 신영아바디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이런 운영의 바탕에는 늘 아버지 이종남 회장님의 철학이 자리합니다. “사회는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다. 타지에서는 인맥을 쌓아야 외롭지 않다”는 아버지의 말씀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고객과 협력사, 직원 모두와의 신뢰 관계를 중시하는 저의 경영 원칙이 되었습니다. 제품의 품질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실과 진정성을 갖는 것이 결국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경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Q. 제품 기획, 생산, 인재 채용, 협업 등 경영 전반에서 대표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오신 철학이나 운영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두 단어로 정리하면 ‘진실’ 과 ‘성실’ 입니다. 부모님도 늘 강조하셨던 가치이고 지금 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는 ‘열정’ 이 더해집니다. 한 번 확인할 일을 두 번 점검하고, 한 군데 확인할 곳을 두 군데 이상 살펴보는 것이 제 일하는 방식입니다. 직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는 돌아온다.”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입사 첫 해 1년간 책상 없이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 경영을 해야 개발도 직원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지금의 조직 안정성과 높은 현지화 비율로 이어졌습니다.





**Q. 인도네시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며 마주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나요? 예를 들어 인허가, 물류, 제도적 차이 등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그 과정에서 어떤 전략적 판단이 필요했는지 들려주세요.**

기술과 환경 모두가 낯선 26살의 나이에 인도네시아에 와서, 현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때는 막막했지만 돌이켜보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도덕 시험에서 늘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아버지를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을 함께 시작하며 작업복을 입고 아버지와 나란히 공장 바닥에 섰던 순간들이 제 경영 철학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면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체감합니다. 어릴 때는 베짜기(자전거 리어카)를 타고도 시내를 누빌 수 있을 만큼 인도네시아가 더 순수하고 안전했지만, 지금은 그런 풍경이 낯설 만큼 도시가 복잡해지고 위험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몸 하나만 챙기면 됐지만 지켜야 할 가족과 직원들이 생기고 나니 도시의 안전 문제부터 사람 간 신뢰까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경영에서도 ‘기술’이나 ‘제도’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과 현장, 그리고 변화를 읽는 감각이라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Q.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계기나, 이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닦아놓으신 기반 덕분에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확신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은 경영의 책임이 제게 더 많이 넘어

왔지만, 그 연속성 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늙고 아이들은 성장한다’는 말처럼, 피와 살을 내어준 부모 세대는 자신이 가진 해안을 아낌없이 자식에게 전합니다. 특히 저희는 한국 기업과 경쟁하기보다는 현지의 화교 기업들과 경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K-드라마, K-팝 등으로 형성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저희 제품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Q. 신영아바디가 향후 주목하고 있는 시장 확장 전략이나 신제품 개발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산업적 전환이나 고객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 등)**

요즘은 중국 출장도 자주 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을 경계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전 세계가 중국을 벤치마킹하는 시대입니다.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는 전제로 시장을 분석하고 실제로 1주일씩 현지 조사를 다녀오며 기제도 직접 주문합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현장을 돌다 보니 화학과로 전공을 바꿨어야 했나 싶은 순간도 많습니다. 지금도 저는 경영보다 실행에 방점을 두고 현장을 누빉니다.

#한인청년회 #한인회 #코참 #옥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교류는나의힘

**Q.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대표님의 경영 철학이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들려주세요.**

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 내 일만 하며 살아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업종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얻게 되는 정보와 인사이트는 경영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끔은 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혹시 미지근한 물속에 익숙해진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늘 경계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점과의 만남이 경계를 깨는 순간이 되곤 하니까요. 무엇보다도 타지에서 살아간다는 건 인맥과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배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라는 이방의 땅에서 외롭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 저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함께 농구를 하던 친구들과 지금 한인사회를 함께 이끌고 있다는 게 가끔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Q. 재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 6대 회장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프로젝트나, 청년 세대와의 연결을 위한 시도 중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고아원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회사가 자사의 제품이나 자원을 기부하고, 청년들이 모여 실행하는 방식인데, 작년 한 차례 진행했고 올해 7월 말에 두 번째를 준비 중입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여럿이면 쉬운 일”이라는 걸 실감하게 된 사례입니다. 고문님, 자문님, 선배님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셨고 자연스럽게 후배 청년들도 끌려오듯 함께 하게 됐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결국 좋은 방향으로 모이는 법이죠. (웃음)

**Q. 한인회 7대 부회장으로서 현지 한인 사회와 함께 고민해온 최근 주요 이슈나 공통 의제는 무엇인가요? 더불어 대표님이 바라보는 한인 공동체의 장점과 미래 방향도 함께 나눠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8월에 있을 한인청소년 장학기금 후원 자선골프대회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사를 넘어 한인 사회의 연대와 지속 가능성을 상징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다는 김종현 한인회장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저는 JIKS(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중학교 1회, 고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JIKS에 중1이 생기고 중2가 생기는 동안 저도 함께 성장하며 철이 들었습니다. (웃음) 한인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공동체 의식은 그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후배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길을 열어주는 일이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한인사회 활동이 2025년부터 본격화되고 되며, ‘내가 받은 만큼, 다음 세대에게 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생각으로 부회장 역할에 임하고 있습니다.

**Q.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은 기업 외적인 영역에서의 리더십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글로벌 감각이나 사회적 시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 맡은 봉사 직책이라 저에게는 애증의 활동이었습니다. (웃음) 하지만 그만큼 진심을 다해 임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처음 눈 뜨고 배우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국가적인 의제를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넓은 시야와 국제적 감각을 갖추며 지금의 제 사회적 리더십에도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Q. 2024년 인도네시아 대사 표창장을 수상하셨습니다. 당시 어떤 활동이 주목을 받았다고 보시며, 그 순간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는지도 나눠 주세요.**

한인청년회 부회장으로 3년간 활동하며 받은 상이었습니다. 사실 상을 받기 위해 일한 건 아니지만, 무일푼으로 달려온 시간의 노력을 인정받듯해 뿌듯했습니다. 이민자의 삶에서 어떤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건, 경제적인 성과와는 다른 차원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일이더라고요. 표창장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순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니다.

#리듬이있는삶 #나를성장시키지는습관 #두가지길  
#가치기반리더십 #전국가족자랑

**Q. 지금의 리더십을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이나 경험이 있었나요? 그 경험이 대표님의 가치관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사 초창기 1년간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있었던 시절이 제게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버텨낸 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쌓은 기본기가 단단해져서 현장을 읽고, 제품을 개발하며, 사람을 관리하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장과 그렇지 않은 사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후 어떤 결정과 변화의 흐름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그 시절 덕분이죠.

**Q. 최근 가장 큰 통찰을 주었던 책, 강연, 혹은 사람 등의 콘텐츠가 있었나요? 그것이 대표님의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권하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제 인생의 책입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꼭 한 번쯤 읽어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자산에 대한 관점과 사고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아 있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고 최진영 가수가 활동하던 스카이의 〈영원〉이라는 곡인데요. “나 처음 태어나서 몰랐다고 말을 할게. 나 약속해. 기다릴게 나 언제라도...”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걸 아버지가 유독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 너에게 완벽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인생을 온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이 노래는 저에게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아버지와와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약속이자 고백처럼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다시 이 노래를 아버지께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Q. 바쁜 업무 속에서도 놓치지 않으려는 삶의 태도나 가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원칙이 대표님의 길에 어떤 의미를 더해주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스킨십 육아’와 ‘신앙’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지키려 노력합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를 갔고, 그 후 아버지도 뒤늦게 믿음의 길에 들어서시면서 우리 가족이 ‘믿음이 있는 가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도 일요일 오전 7시 예배에 꼭 맞춰 교회에 갑니다. 예배가 끝나면 오후 2시쯤, 다시 평일의 리듬으로 돌아가죠. 첫째 아이가 초등부로 올라가던 해, 함께 초등부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은 미국에 있지만 저는 여전히 교회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육아가 제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축입니다.

**Q. 가족 자랑 코너입니다 (웃음). 대표님에게 가족은 어떤 존재인가요? 삶의 리듬 속에서 가족이 주는 정서적 지지나 균형의 역할에 대해 나눠 주세요.**

팔볼출 소리를 들어도, 사랑하는 아내 이야기는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웃음) 당시 아내는 미국에,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었는데, 중간 지점인 한국에서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인상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깊이 있는 마음과 성품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정답을 말하는 편인데 저의 생활 철학인 ‘성실함’과 ‘진실함’이 딱 들어맞는 짝이었습니다.

2014년생 아들 이정용은 ‘엄마와 아빠 반반’, 2016년생 딸 이유진은 ‘저와 판박이’입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도 꽤 밀리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잡니다. 아이들을 양팔에 베고 재우는 그 시간이 제게는 하루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원천입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3대가 화목하다는 말이 있지요! (웃음) 그만큼 저는 가족의 조화와 신뢰 속에서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 #끝말잇기보다중요한세대잇기

#### #주거니받거니청년멘토링 #미래비전 #주연보다조언

**Q. 이제 막 글로벌 무대에 진출하려는 청년 창업가나 차세대 경영자들에게 직접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현장에서 터득한 현실적인 조언을 들려주세요.**

인도네시아는 한국보다 시장이 크고 성장 속도도 빠르지만, 그만큼 제도적 허들, 문화적 복잡성,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리스크도 공존합니다. ‘새로운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회는 넓지만, 그것을 제대로 읽는 눈과 오래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중요하다.”

처음에 우리가 진출했던 산업이 봉제·신발 같은 전통 제조업 중심이었다면, 지금의 청년 세대는 디지털, AI, 콘텐츠, 미디어, 환경 기술 등 훨씬 다양한 방향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의 정답’이 변한 게 아니라, ‘사업을 푸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 기반에는 한국인 특유의 끈기, 정직함, 집중력이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인데 한국인은 위대합니다.

민족주의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겪고 체감한 결론입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위대함을 믿고 실행으로 옮길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Q. 10년 뒤의 대표님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 거라 기대하시나요? 현재와 비교해 변화할 부분과 절대 지키고 싶은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 주세요.**

지금도 앞으로도 가장 지키고 싶은 가치는 ‘성실함’과 ‘진실함’입니다. 전쟁과 갈등이 반복되는 이란·이라크 전쟁, 러우 전쟁 같은 세계 정세 속에서 ‘상실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인간성을 잡아줄 가치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성실함과 진실함이며, 아이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삶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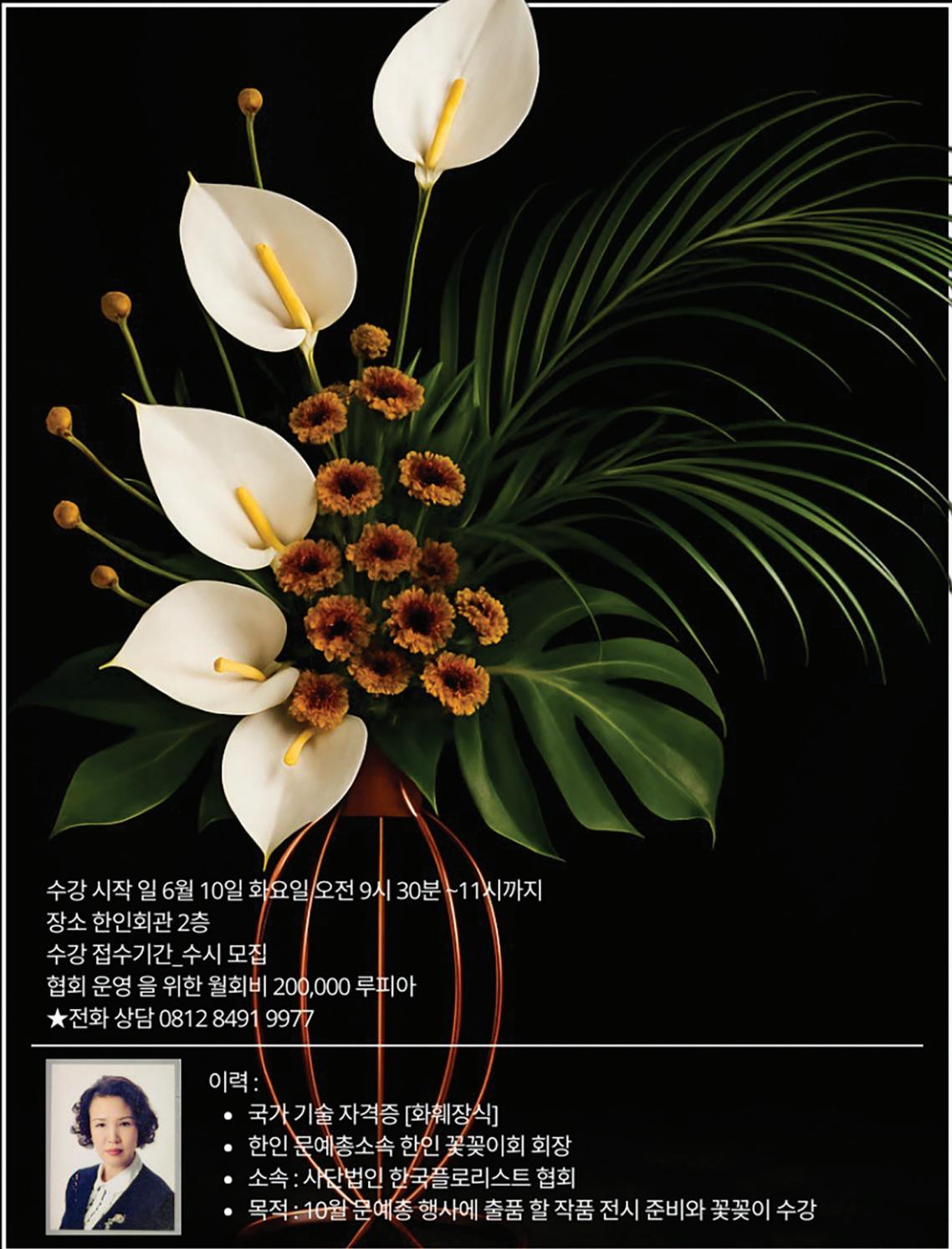
10년 뒤의 저는 지금보다 더 넓은 무대에서 책임을 감당하고 영향력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마음 놓고 “이제 네가 잘 해내고 있구나”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모습에 다다르고 싶습니다. 아직은 그 말씀이 들리기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웃음) 앞으로의 삶의 무대가 한국이 될지 제3국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인도네시아가 아닌 다른 제 3국에서 정착하게 된다면, 우리 가족은 자연스럽게 ‘다국적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제 삶의 무대가 인도네시아라는 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Q. 끝으로 이 인터뷰를 읽고 있을 한인뉴스 독자들과 미래를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 주세요.**

신임 한인회장님과 편집인, 편집장, 편집위원들이 빛어가는 한인뉴스의 지면을 통해 처음 인터뷰하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저의 경험과 생각이 누군가에게 작은 좌표 하나쯤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선배 세대가 일궈놓은 ‘기반’ 위에서 시작하는 세대입니다. 그 위에 어떤 방향성을 그려놓을지, 어떤 궤적을 남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끝말잇기보다 중요한 건 세대잇기입니다. 가벼운 인사와 짧은 만남,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연결’이 결국 큰 흐름을 만듭니다. 부디 이 인터뷰가, 지금 어디선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나도 시작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강 시작 일 6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 11시까지  
장소 한인회관 2층  
수강 접수기간\_수시 모집  
협회 운영을 위한 월회비 200,000 루피아  
★전화 상담 0812 8491 9977



이력:

- 국가 기술 자격증 [화훼장식]
- 한인 문예총소속 한인 꽃꽂이회 회장
- 소속: 사단법인 한국플로리스트 협회
- 목적: 10월 문예총 행사에 출품 할 작품 전시 준비와 꽃꽂이 수강



## KF,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14명 한국 초청 한-인니 교류의 미래를 잇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지난달 일주일간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사 소속 차세대 언론인 14명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이번 초청은 KF 자카르타 사무소와 인도네시아 외교정책커뮤니티(FPCI)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이다.

참가자들은 2024년 KF가 주최한 6회 워크숍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 디지털 정부, 녹색경제,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바 있으며, 이번 방한은 이러한 교류의 연장선으로 마련되었다. 언론인들은 서울, 경주, 부산 등 주요 도시를 순

회하며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한국 사회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 지역의 아세안문화원, 자원순환협력센터, 현대모터스튜디오 등지를 견학하며 환경 분야 협력과 한-인니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또한 광안리 해변, 해동용궁사 등 부산의 주요 관광지 방문도 함께 진행되어 문화적 체험의 폭을 더했다.

KF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한-인도네시아 간 지속가능한 언론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 KT&G복지재단, 해피피플과 함께 인도네시아 하라판 카쉬 방사 학교 신축 준공



지난 10일, KT&G복지재단(이사장 민영진)은 해피피플(이사장 양재영)과 8개월간의 공사 끝에 짜안주르 소재 하라판 카쉬 방사 학교 신축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신축 공사는 KT&G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학교 중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선정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며 선정된 하라판 카쉬 방사학교는 기존 재활시설을 수리하여 유치원, 초, 중학교를 운영하다 보니 수용시설과도 같은 건물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하지만 이번 KT&G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도서관, 컴퓨터실, 과학실은 물론 11개의 초등학교 교실, 유치원 2개실, 운동장을 갖춘 현대적인 학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지진과 폭우로부터 학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사면 안정화 공사를 진행하여 앞으로 교사들과 아이들이 편안하게 수업할 수 있는 학교로 변모되었다.

이번 뜻깊은 하라판카쉬방사 신축공사 세레모니에는 KT&G복지재단 민영진 이사장과 해피피플 조재현 이사, 인도네시아 짜빠나스주 관청, 교육청 하라판 카쉬 방사 학교 조슈아 코안토 구나완 이사장, 안토 시나가 교장, 리더아 필롱고 교장과 학생 80여명과 학부모단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한 내외빈 못지 않게 현지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인도네시아 TVRI 자와바랏, 라다르

짜안주르 등 자카르타 및 짜안주르주 내 지역방송사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었다.

행사에 참석한 짜안주르주 관공서, 하라판 카쉬 방사 학교 조슈아 코안토 구나완 이사장은 감사 인사를 통해 하라판 카쉬 방사 학교는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아이들이 인도네시아의 미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G복지재단 민영진 이사장은 축사에서 교육은 통해 꿈을 키워온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물하는 뜻깊은 일이며, 새롭게 건축된 학교는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 이들이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해피피플 양재영 이사장은 KT&G복지재단과 함께 2년간 인도네시아 아난다 초등학교 신축교사 건립, 보고르주 미트라 초중등학교 리모델링, 짜안주르주 하라판 카쉬 방사 학교 신축 준공과 함께 두 나라에 지속적인 해외봉사단 파견을 통해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교육환경속에서 공부하고 서로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했으며 사업의 취지를 밝히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더욱 매진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제공: 해피피플)

#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 - 2025 JIKS Swimming Competition -

2025년 6월 20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이선아)에서 2025학년도 JIKS 수영대회가 열렸다.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특기를 발휘하고 스포츠맨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매년 학년별, 영법별로 열리는 JIKS Swimming Competition에는 올해도 1-2학년은 자유형, 배형, 평형 종목 25m 경기로 3-6학년은 자유형, 배영, 평형, 접영 종목 50m 경기가 진행되었다.

1학년 8명, 2학년 14명, 3학년 7명, 4학년 12명, 5학년 10명, 6학년 9명 총 6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자신의 수영실력을 뽐내고 친구들과 스포츠맨 정신을 발휘하며 우정을 나누었다.

학년별, 남녀별, 종목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및 상장을 수여하였으며, 수상 여부에 상관 없이 서로 격려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었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이선아 교장은 “여러분은 참가 신청을 했다는 것만으로 위대하며 칭찬 받을만하다. 더불어 자신의 스포츠맨 정신에 의거하여 정정당당하게 대회에 참가한 모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자랑스럽다” 라는 응원의 말을 건넸다.

수영대회 담당 체육교사 Mr.Flor는 “많은 학생들이 정정당당하게 경기하고 즐겁게 즐겨주어서 매우 뿌듯함을 느낀다” 고 소감을 전했다.



#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제21기 2차 정기회의 성료

## 공공외교의 지속적 노력 강조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회장 이세호)는 5월 27일 제21기 마지막 정기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38명, 오프라인 9명, 대사대리 등 VIP 2명을 포함해 총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세호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21기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민주평통이 될 수 있도록 공공외교에 지속적으로 힘써달라” 고 당부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대내외 환경 변화와 통일 대북정책 추진 방향’ 을 주제로 제2분기 토의가 진행됐다. 자문위원들은 각자의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며,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략적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대리는 축사를 통해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들 사이에서 통일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라며, “이런 시점에서 동남아남부협의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자문위원들이 서로의 시각과 경험을 공유해 실질적인 통일 여론을 형성해나가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가치 있는 일”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제21기 동남아남부협의회는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며, 향후 출범할 제22기의 활약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공: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사무국)



# 발리에서 요가 자격증 따며 한 달 살기 Hyaang, the yoga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향기님들.

7월입니다. 이번 달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가 ‘요기(Yoggie)’로 거둔 나게 된 여정, 발리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며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했던 경험을 나눠보려 해요.

사실 요가 자격증을 따기 전까지 저는 요가를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매일 집에서 스트레칭 위주의 간단한 운동만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단기 여행으로 발리를 방문했을 때, 우붓(Ubud)에 있는 한 요가 센터에 참여하면서 요가를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시절, 실내 운동만으로는 답답함을 해소하기 어려웠고, ‘이럴 바에야 요가를 제대로 배워보자’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발리에서 진행되는 요가 지도자 과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운 좋게도 아이들 방학과 딱 맞는 일정이 있었고,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교육비도 훨씬 저렴해서 바로 신청하게 되었지요.

발리 전역에는 요가 센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붓에는 전통 있고 오래된 요가 센터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커리큘럼이나 강사의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센터의 위치, 규모, 숙박 및 식사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비용이 두 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꼼꼼하게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 첫날, 성스러운 의식으로 시작한 하루

입구에서부터 영적인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어요. 사진 속에 보이는 분은 발리 마을마다 있는



힌두 사원(Pura)의 성직자입니다. 발리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첫날에는 성직자를 모셔와 나쁜 기운을 내쫓고 좋은 기운을 부르는 힌두 의식을 진행해요. 우리나라의 고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힌두 의식은 불을 피우는 ‘야즈나(Yajna)’ 형식이지만, 지금은 향을 피우고 성스러운 물을 머리에 뿌리며 간소하게 치러집니다.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자는 의미로 실 팔찌를 착용했어요. 어떤 분들은 마지막 날까지 땀 냄새가 배인 끈을 손목에 계속 차고 다니기도 하셨는데, 저는 다음 날 샤워하면서 바로 풀었습니다. 땀도 나고 조금 간지럽더라고요.

## 하루의 시작, 아침 호흡과 명상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요가 지도자 과정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아침 7시 30분 호흡과 명상 수업으로 시작돼요. 푸른 눈 너머로 떠오르는 햇살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는 이 시간은, 그날의 몸과 마음을 깨우는 소중한 순간이에요. 요가에서 호흡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가의 여덟 단계 중에서도 동작을 취하는 아사나보다



짠, 발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전의 하이라이트 ‘빈야사’ 요가 수련

더 높은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프라나야마 (Pranayama), 즉 호흡 조절입니다.

상쾌한 공기를 깊숙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의 생각들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시작입니다. 명상은 요가의 일곱 번째 단계인 디야나(Dhyana), 끊어짐 없는 무념무상의 상태로 들어가는 수련입니다.

### 오전의 하이라이트, 빈야사 수련

잠시 쉬고 나면 오전 요가 수련 시간이 이어집니다. 제가 들은 과정은 빈야사(Vinyasa) 요가 지도자 과정이라 매일 오전 한 시간 반 동안 집중적으로 빈야사 수련을 했어요.

여기서 잠깐! 요가는 수련 방식과 목적, 추구하는 스타일에 따라 다양하지만 많이 접하는 요가를 여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어요.

### 대표적인 요가 유형

#### 1. 하타 요가 (Hatha Yoga)

- ◆ 산스크리트어로 Ha는 해, Tha는 달을 의미합니다.
- ◆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형태의 요가예요.
- ◆ 대부분의 요가 동작이 하타 요가에서 유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2. 아쉬탕가 요가 (Ashtanga Yoga)

- ◆ 산스크리트어로 ‘여덟 가지 단계’를 의미하며, 요가의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으로 가는 체계적인 수련을 말합니다.
- ◆ 아주 엄격하고 정형화된 시퀀스를 반복하면서 수행하게 됩니다.

- ◆ 고정된 순서대로 매일 반복하며 신체와 의식을 자각하게 하는 요가예요.

#### 3. 빈야사 요가 (Vinyasa Yoga)

- ◆ 산스크리트어로 ‘흐름’을 의미합니다.
- ◆ 동작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호흡과 함께 연결하여 이어가는 요가입니다.
- ◆ 아쉬탕가처럼 정해진 시퀀스 없이 다양한 동작을 조합해 수련할 수 있어서, 창의적이고 유연한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잘 맞습니다.

#### 4. 레스토러티브 요가 (Restorative Yoga)

- ◆ ‘회복’과 ‘휴식’을 위한 요가예요.
- ◆ 매우 느린 리듬으로 진행되며, 깊은 이완과 편안함을 통해 신체와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 5. 아크로 요가 (Acro Yoga)

- ◆ 곡예(Acrobatic)와 요가(Yoga)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 ◆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함께 하는 요가로, 파트너와의 협력과 균형이 중요한 재미있는 수련이예요.

#### 6. 인 요가 (Yin Yoga)

- ◆ 음의 성질을 가진 부위를 자극하는 요가입니다.
- ◆ 한 자세를 3~5분 정도 길게 유지하면서 근막, 인대, 관절 등 깊은 조직을 이완시키고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 ◆ 대부분의 요가가 ‘양(陽)’의 성질을 가지는 근육 중심이라면, 인 요가는 그 반대의 정적인 수련입니다.

이렇게 오전의 수련이 마무리되면,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찾아옵니다.

- 다음 호에 계속

Yoga instructor, Michelle Yoga class <Hyaang, the Yoga>

그룹 및 개인수련 문의는 카톡 ‘tidapapa’로 문의주세요



Michelle Yang  
HYAANG, THE YOGA

[취미부자 열정고수]



## 어쩌다 보니 운동예찬론자

임혜영 (런닝팀 Comberun Tangsel / 배드민턴팀 Julied)

#프로인도네시아거주자 #Bhinneka\_Tunggal\_Ika #마라톤 #comberun #배드민턴 #julied #buka\_bersama #padel #테니스 #헬스 #복싱 #건강한몸건강한뇌 #규백아한경아다경아사랑해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뛰고 웃으며 지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방식입니다. 운동보다 좋은 건 현지 친구들과 함께 웃고 땀 흘리는 시간들이에요. 같이 운동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요. 처음엔 그냥 몸을 좀 움직여보자는 정도였는데 어느새 친구가 되고 웃을 일이 생겨요. 어쩌다 보니 운동예찬론자가 되었네요. 인도네시아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 Comberun과 함께하는 발리 마라톤

지금 가장 집중하는 운동은 런닝이에요. 8월 24일 열리는 'Bali Maybank Marathon' 에 참가 신청을 하고 코치까지 섭외해서 연습 중이에요. 런닝팀 Comberun 팀원들과는 꼬바야를 입고 생일파티를 열 만큼 단합이 잘 돼요. 인도네시아에 사는 김에 인도네시아를 진짜 즐겨보고 싶어요.





### 배드민턴팀 Julied

3년 전에 결성한 배드민턴팀. Julied라는 정식 이름이 된 지는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처음엔 몇 명이서 가볍게 모여 쳤던 배드민턴이 점점 입소문을 타더니 이름 있는 정식 동호회가 됐어요. Julied는 매년 라마단 뿌아사 기간에는 Buka Bersama(이프타르) 모임을 갖는 전통까지 생겼어요.

### 유행하는 Padel 입문 완료

요즘 핫하다는 Padel도 해봤어요. 궁금한 건 도전해보는 편이에요.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죠! 테니스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어서 자주하게 될 듯해요. 한경아, 다경아. 엄마의 행복한 취미생활을 이해해줄 아량 넓은 아이로 자라다오.





### 나와 가족을 위한 운동루틴

많이 먹는 편이라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렇다고 단순히 체중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에너지가 입으로 가지 않게 몸으로 씁니다. 운동을 컨디션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가족 평화를 위한 루틴이기도 해요. 뇌가 건강해야 가족한테도 잘하고, 가족이 행복하잖아요.

### 규백아, 한경아, 다경아, 사랑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함께 운동하는 남편과 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규백아, 사랑해. 우리 앞으로도 운동하며 천년만년 행복하자! 한경아, 다경아,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땀방울의 의미를 아는 아이로 자라렴.

###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 생활

엄빠만 취미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 전엔 아이들과 함께 발레 공연을 보러 갔어요.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오래 남는 게 있더라고요. 주말마다 수영, 인라인 스케이트, 아이스 스케이팅도 같이 해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꿈 많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해요.



# 2025 한-아세안 연계성 포럼 개최

-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한-아세안 연계성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주아세안대표부는 6.17(화) 「2025 한-아세안 연계성 포럼(2025 ASEAN-ROK Connectivity Forum)」을 자카르타에서 개최하였다.

5.26(월)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와 함께 ‘아세안 연계성 전략 계획(ASEAN Connectivity Strategic Plan, ACSP)’ 등 4개 분야 전략계획이 채택되었으며, 동 계획에 따른 연계성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대화상대국 최초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및 아세안 연계성 전문가, 당지 외교단,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 민간 기업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장근 주아세안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아세안이 ACSP를 채택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추진할 연계성 로드맵을 마련한 것을 축하하였으며, 이번 행사가 동 전략 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한-아세안 연계성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ACSP 채택 직후 시의성 있게 개최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이 대사는 우리 정부가 아세안 경제 발전 및 통합을 위해 인프라, 디지털,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지

난 10년간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 플랜(MPAC) 2025’ 이행을 지원해 왔음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하 연계성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오 김 혼(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그간 한국측의 아세안 연계성 지원이 역내 통합, 지역 격차 해소 등 아세안 공동체 구축에 주요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하고, 아세안 연계성 고도화를 위한 ACSP 이행에 있어 한국 등 대화상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MPAC 2025 평가 및 ACSP 하 한-아세안 연계성 협력 기회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 속 한-아세안 공급망 연계성 협력 촉진 방안의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및 아세안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동 분야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며 한-아세안 연계성 협력 확대를 위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되었다.

##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로 살아가는 통번역사의 이야기 2 나는 존재감으로 위로 받는다



월루즈 에라닝띠아스 (아중)

통번역사, System Ever Indonesia

“아중 님, 통역 한 번만...”

사무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이다.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으니 통역 부탁받는 것이 나의 일상이다.

자카르타에서 일하다 프로젝트 때문에 3월에 수카부미로 내려왔다. 톰복 사람이지만 자카르타에서 일을 할 때는 적응하기가 생각보다 쉬었다. 막상 수카부미에 왔을 때 무언가 허전함이 있었다. 고향의 모습을 그리워서일까?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도 일이지만 오히려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초보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는 나에게 문서를 번역하거나 대화와 회의를 순차적으로 통역하는 것이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재미를 느낀다.

“재미있는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아무리 한국어를 잘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통역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지 직원들의 눈에는 통번역사의 역할이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 수월하게 보일 거다.

하지만 통번역사 입장에서는 재미있어도 통역 부탁을 받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많다. 무슨 대화의 내용을 통역해야 할까? 이번에는 양쪽의 대화를 빨리 이해하고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믿고 대화의 흐름을 따라서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순차적으로 통역을 했다.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재차 설명을 부탁하면서 천천히 이해하려고 했다. 그래야 잘 전달할 수 있으므로.

가끔 두세 번 정도 설명을 듣고 나서도 아직 이해를 못 하면 눈치를 준다.

한번은 회의에서 이사님 한 분이 “아중 씨, 통역하기가 힘들지? 처음에는 눈물이 많이 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네, 신발 공장에서 처음일해서 아직 공정을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면 현지인한테 물어봐요. 다들 일한 지 5년에서 10년인 베테랑들이예요.” 라고 말씀하셨다.







## 내가 바라는 세상을 노래해요!!!

권영경

(Jakarta korean children' s choir 17기 단원 학부모)

어른들이 거짓말 안 하는 세상, 주차선을 바르게 지키는 세상,  
 사람 많이 모여도 안전한 세상, 하고픈일 다 되는 마법 같은 세상  
 사랑하는 친구와 매일같이 모여서 넓은 잔디밭에서 맘껏 뛰게 해주세요  
 꽃과 새가 노래하고 동물들과 어울려 햇살 가득 받으며 미소 짓는 우리들  
 아픔도 외로움도 고통도 슬픔도 모두 사라지기를  
 우리들 누구라도 좋아 이제 여기서 모두 다 같이 모여 함께 노래 할래요  
 내가 바라는 세상, 네가 꿈꾸던 세상  
 누구라도 한번쯤 생각하던 파라다이스  
**싸우지 않는 세상, 평화로 가득한 곳, 웃음만이 넘치는 행복 가득한 세상, 내가 바라는 세상!!**

>> 이토록 아름다운 글은 시가 아니라 윤일상 작사,  
 작곡 <내가 바라는 세상> 동요의 노랫말입니다.

<자카르타 한인 어린이 합창단(Jakarta korean children' s choir : 이하 JKCC)>을 아시나요?

2005년 3월에 창단된 JKCC는 올해로 17번째  
 기수를 맞이한, 꽤 오랜 역사를 자랑 하는 자카르  
 타의 유일무이한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코로나19

로 약 3~4년간 활동이 중단 되었다가 작년 2024  
 년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  
 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부  
 터 6학년 사이의 어린이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 함

게 화음 맞춰 노래 부르는 JKCC는 그 자체로 따뜻한 음악 공동체입니다. 저 역시 작년에 단원 모집 소식을 접하고, 외동딸에게 양보와 배려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그렇게 1년! 아이들과 부모, 선생님 두 분의 노력으로 지난 6월 7일 자카르타 늘푸른교회에서 2025년 JKCC정기 연주회를 멋지게 마무리했습니다.

합창 뿐 아니라 랩과 춤, 부모와의 협연, 졸업생들의 특별 솔로도 있었습니다. 26명의 어린이들이 맑고 고운 우리말 동요를 화음 맞춰 부르는 모습은 꼭 단원 부모라서가 아니라 묘한 몽클함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었어도 마찬가지로였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죠? 제가 어릴 땐 매년 5월이 되면 <창작동요제>가 열렸고 어린이날 그 프로그램을 온 가족이 TV 앞에서 보는 것이 그날의 가장 큰 이벤트 였는데 말이죠. 그 덕분에 우리는 <새싹들이다>, <노을>, <파란나라>같은 귀한 동요들을 여전히 아이들에게 불러 줄 수 있습니다.

외국에 살며 아름다운 우리말로 된 동요를 따라 부른다는 것,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모여 각

기 다른 마음들과 의견을 조율한다는 것, 서로 다른 목소리를 요리조리 화음 맞춰 하나로 만들어 내 보는 것 그리고 그 연습의 시간들을 크고 작은 무대에서 멋지게 선보이는 것!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름다운 가사를 예쁜 음에 태워 한없이 맑은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던 아이들의 미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미소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살면서 일어나는 좋고 나쁜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이해 못할 것도,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겠다 하고 말이죠.

아이들의 목소리엔 어른들이 갖지 못한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뭐든 다 꿰뚫아지는 마법의 힘이 있지요. 아이들이 바라는 세상은 사실 아주 가까이에 있고 이 먼 타지에서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는 한국의 정서를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단단한 울림을 줄 것입니다.

올해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내년 JKCC공연 놓치지 마세요!

<JKCC 자카르타 한인 어린이 합창단>에서 제 18기 새 단원을 모집합니다.

2013년~2016년생 대한민국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음표를 씬표로 바꿀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동요 한 곡을 동영상 촬영하여 아래 구글폼(QR코드)으로 신청하세요.



자카르타 어린이 합창단 오디션 신청서 - Google Forms docs.google.com

문의 : 카카오톡 bong0528



제14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공모

모국어로 빛은 이야기, 인도네시아의 풍경이 되다

2025. 06.01 (일) ~ 07.15 (화) 18:00 마감



2010년 첫 씨앗을 심은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이 어느덧 열네 번째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글이 숲이 되고, 시가 길이 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모국어로 직조된 삶의 서사를 발굴해 왔습니다. △소설 △수필 △시 - 장르를 넘어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 공모 주제 : 내가 경험한 인도네시아 문화, 내가 만난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세안 등
- 공모 대상 : 학생부 (중·고등학생) 및 일반부 (대학생·성인)  
※ 성인부 대상(혹은 최우수상)은 한국문예지에 등단 기회 부여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ikcskr@gmail.com](mailto:ikcskr@gmail.com)과 [ikcsaward@naver.com](mailto:ikcsaward@naver.com)  
동시 송부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학년 표기)  
•한글 파일, 산문 A4 3쪽~4쪽 / 운문 2편 (맑은고딕 10p, 행간 160%)  
•순수 창작물 (발표되었거나 표절 작품은 당선 취소)
- 시상식 및 문화행사 : 9월 13일(토)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나래홀(예정)
- 시상 내용 : 인원 미정 / 상장 및 상금

구분	일반부	학생부
대상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상	주ASEAN 대한민국대표부 대사상
최우수상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상	한인니문화연구원장상
우수상	KB Bank 국민은행장상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상
	재인한인중소벤처기업협의회회장상	무궁화 유통 기업상
특별상	인도네시아 예술가상	인도네시아 갤러리
	Indonesia Korea Friendship Association	Historika Indonesia
장려상	한인니문화연구원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자가 없을 수 있음

※ 시상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제2회 『나의한국이야기』  
Sayembara Sastra 『Kisah Koreaku』 ke-2

# 문학상 공모

한국을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Periode: 1 Juni~15 Juli 2025**



- ◆ **참가 대상:**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대학생 및 일반인 누구나  
**공모 주제:** 내가 만난 한국, 내가 경험한 한국문화, 한국과 나의 미래  
**장르:** 에세이, 이야기, 시, 감상문 등
- ◆ **Terbuka untuk WNI** (Pelajar, Mahasiswa, dan Umum)  
**Jenis Karya:** Esai, cerita, puisi, ulasan (format bebas)  
**Tema Karya:** Korea yang aku temui, Pengalaman K-Culture, Masa depanku bersama Korea

Penghargaan:

대상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상
최우수상	한인니문화연구원상
	보디맥스 (Bodimax) 문화교류상
우수상	예원 (Yewon) 문화교류상
특별상	누들킹 (Noodle King) 문화교류상
장려상	푸놀치 (K-FEAT) 문화교류상
	보디맥스 (Bodimax) 브랜드상

Sayembara "Kisah Koreaku" ke-2 disponsori oleh Bodimax

Selengkapnya:



[bit.ly/kisahkoreaku](https://bit.ly/kisahkoreaku)

[www.ikcs.kr](http://www.ikcs.kr)  
[band.us/@ikcs](https://band.us/@ikcs)  
[@ikcs.kr](https://www.instagram.com/ikcs.kr)  
[ikcskr@gmail.com](mailto:ikcskr@gmail.com)



[이 학교를 소개합니다]

## 세계로 나가는 문 글로벌자야(Global Jaya School)



김은희 (글로벌자야 교사)

1995년에 설립된 글로벌자야학교는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국제 바칼로레아(IB) 인증 국제학교로, 만 4세부터 19세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문(Gateway to the World)"이라는 교훈 아래, 글로벌자야학교는 지적 호기심이 풍부하고, 지식 있으며, 공감할 줄 아는 세계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풍성하고 통합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교육의 중심축: 비전과 사명

글로벌자야학교는 학생들의 성취를 기념하는 일부터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 수립까지 모든 활동에서 비전과 사명을 중심에 둡니다.

학교는 '인도네시아적 색채가 살아 있는 국제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비전:** 글로벌한 시각을 지닌 창의적인 문제 해결자이자, 인도네시아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국제 사회 속에서 협업하고 이끄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사명:**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실제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력을 기르며, 영어·인도네시아어·모국어 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적 맥락 안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B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 IB 교육과정

글로벌자야학교는 만 4세부터 19세까지의 학생들에게 세 가지 IB 프로그램(PYP, MYP, DP)을 통해 통합적이고 일관된 교육 여정을 제공합니다. PYP (초등과정, 4~12세): 교실 안팎에서 주도

적으로 탐구하는 전인적 학습자를 길러내며, 여섯 가지 전 지구적 주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과 지식을 통합하여 탐구 중심 수업을 운영합니다.

**MYP (중등과정, 12~15세):**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공감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개념 기반 교육과정입니다. 학생들은 지역, 국가, 국제적 문제를 탐구하며 사고력을 키웁니다.

**DP (디플로마과정, 15~18세):**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등과정으로, 지식의 폭과 깊이를 모두 갖춘 균형 잡힌 인재를 기릅니다. 신체적, 지적, 정서적, 윤리적으로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며, 국제적 이해와 문화 간 이동성에 기여합니다.

**교실을 넘어서는 배움: 방과후 활동 (ASA)**

글로벌자아학교는 Year 1부터 12까지 전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ASA)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ASA는 학생들에게 학문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폭넓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 자존감과 인내심, 회복탄력성, 협동심을 기를 수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방과후 활동은 자수, 댄스, 합창, 무술, 저널리즘, 사진, 코딩, 공예 등이 있습니다.

**학생 지원 서비스**

Student Success Services 팀은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업, 심리 상담, 사회·정서 학습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개별 상담, 그룹 워크숍, 교실 내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회복력과 전인적 성장, 차별화된 학습을 지원합니다.

**진로 설계와 대학 진학 지원**

대학 및 진로상담부는 중등과정부터 학생들이 관심사를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진학 지원을 제공합니다.

입시 준비(시험, 에세이, 면접)뿐 아니라,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 세계 대학과의 네트워크, 최신 입시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연중 여러 차례 국내외 대학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대학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고, 입학 요건과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학교 시설

글로벌자야학교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학실:** 화학, 생물, 물리 실험을 위한 안전하고 최신화된 과학실 5개

**예술센터(PVAC):** 대형 공연장을 중심으로 음악실, 드라마 스튜디오, 영상 편집실, 미술실, 개인 연습 공간 등을 갖춘 예술 복합 공간

**스포츠 시설:** 체육관(농구·배드민턴·배구장), 수영장(주니어풀 포함), 국제 규격 축구장, 육상 트랙, 테니스장 등

**놀이터:** 연령대별로 설계된 3개의 안전 놀이터

**도서관:** 3만2천여 권의 도서 및 디지털 자료를 갖춘 학습 허브

**학생식당:** 896㎡ 규모, 위생적이고 영양 균형을 갖춘 식단 제공

**보건실:** 의료 등급의 장비를 갖춘 건강 관리 공간

학교 위치 및 연락처

주소: Jl. Emerald Boulevard, Parigi  
Kec. Pondok Aren  
Tangerang Selatan  
Banten 15227

전화번호: (021) 7457562



# 긴급전화번호



경찰 범죄 및 도난 신고	POLICE (Polisi)	112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전화번호 안내

-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 시외.....105, 100  
Directory Service(Suburbs)
- 국제전화.....001, 008

## 교통기관

- 수카르노 하따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5505179
-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 고속도로 정보.....14080  
(Toll Jabotabek)
- 교통사고 Traffic Accidents.....1500669  
NTMC(SMSCenter).....9119
- 열차시간안내.....121  
WAKAI121.....081111 2111 121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 한국대사관.....021)2967 2555
- 영사과.....021)2967 2580
- 대사관 발리분관(당직폰).....0811 3831 3659
-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항공사 안내

-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날3).....021)8082 2198/9
-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031 1030  
(공항).....021)8082 2291~2

## 우편

-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각종 고장 문의

- 전기고장 문의.....123
- 전화고장 문의.....188
- 수도고장 문의 (Palyja Jakarta).....1500223

## 종교법(Hukum Agama) (3)

(전호에서 계속)

### 7. 전도 및 종교 단체에게 외국 원조에 관한 종교부 장관 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1979년 제 11호

7.1. 외국 원조란 인력, 물질, 재정, 교육 시설 및 다른 형태로 외국 정부, 외국 단체 혹은 외국인 개인이 인도네시아의 종교 지도, 개발 및 전도 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의미한다.

7.2. 종교 단체란 종교 지도, 개발 및 전도 목적으로 존재하는 조직, 기관, 재단 법인 및 개인을 의미한다.

7.3. 전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금한다.

7.3.1.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에게 자기 종교를 믿어보라고 그냥 권유하거나 물건, 돈, 옷, 음식, 음료, 치료, 약품 혹은 다른 형태의 물건을 주면서 권유하는 행위

7.3.2. 특정 종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에게 팸플릿, 잡지, 게시판, 책 혹은 다른 형태의 출판물을 주는 행위

7.3.3. 특정 종교를 이미 가진 사람의 집 방문

7.4. 외국의 지원을 받으려는 종교 단체는 종교부의 추천을 받고 대외협력 조정위원회(PKK-TLN)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7.5. 외국인 성직자나 외국인 전문가 이용과 모든 형태의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한다.

7.6. 주지사, 군수 및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종교 단체를 돕고 있는 외국인 성직자 혹은 외국인의 활동, 전도하는 종교 단체의 활동, 외국의 지원을 사용하는 일, 종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종교 및 사회 분야 교육 및 훈련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종교부 지방청의 직무 활동을 도와야 한다.

### 8. 개신교 재단법인의 등록 의무

재단법인의 정관에 설립 목적이 개신교 분야 종교 활동, 개신교 분야 사회활동 및 개신교 분야 인간사랑 활동으로 되어있는 재단법인은 종교성 개신교 지도청(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은 신규 등록과 재등록, 두 종류가 있다.

#### 8.1. 개신교재단법인의 신규 등록 의무

8.1.1. 등록 신청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다.

8.1.1.1. 소정 신규 등록 신청서

8.1.1.2. 재단법인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8.1.1.3.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8.1.1.4. 종교성 지방청에 등록확인서

8.1.1.5. 종교성 지방청의 추천서

8.1.1.6. 재단법인 소재지 구청장/면장 발급 소재 증명서

8.1.1.7. 재단법인의 간략한 역사

8.1.1.8. 개신교 지도청에 등록되어 있는 3개 재단법인 혹은 교단의 추천서

8.1.1.9. 재단법인의 장기, 중기 및 단기 사업계획서

8.1.1.10. 신규 교단 설립하거나 세례 및 성찬의식을 거행하지 않겠다는 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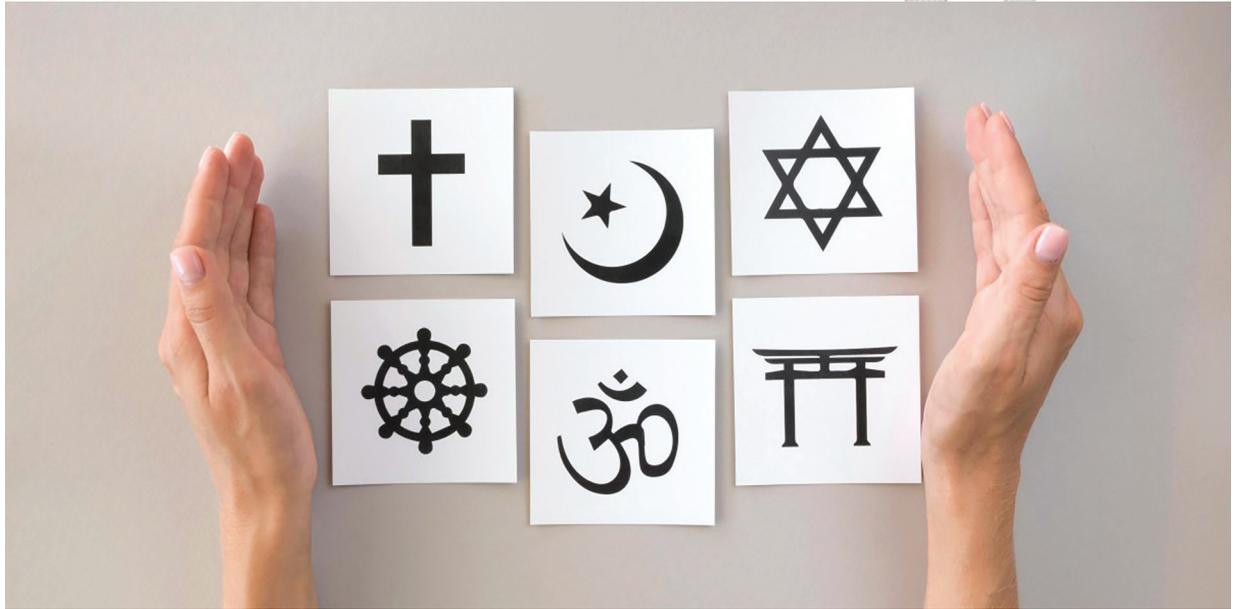
8.1.1.11. 연간 활동 보고서와 5년 활동보고서를 개신교지도청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각서

8.1.1.12. 재단법인의 로고(상징) 문제로 제삼자와 분쟁이 없으며 반사회적인 요소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

8.1.1.13. 재단법인의 최근 2년 동안의 활동보고서

8.1.1.14. 납세의무자 등록증

8.1.2. 신규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 및 등록증 발급 절차



8.1.2.1. 서류 심사를 먼저 한다.

8.1.2.2. 이어서 재단법인에 대한 현장 심사를 한다.

8.1.3.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에 통과되면 재단법인 등록에 관한 개신교지도청장 결정서(재단법인 등록증)를 발급한다. 등록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8.1.3.1. 등록 신청 일자 및 접수 번호

8.1.3.2. 설립 및 개정 정관 일자 및 번호

8.1.3.3. 정관 작성 공증인 성명 및 소재지

8.1.3.4. 설립 정관 승인 부처, 일자 및 번호

8.1.3.5. 법무부 승인서 일자 및 번호

8.1.3.6. 종교성 지방청 추천서 일자 및 번호

8.1.3.7. 결정서 일자 및 번호

8.1.3.8. 개신교 재단의 이름

8.1.3.9. 개신교 재단 설립일

8.1.3.10. 개신교 재단의 주소 및 법적 소재지

8.1.3.11. 재단법인의 활동 분야

8.1.3.12. 재단법인의 납세의무자 등록번호

8.1.3.13. 등록증 유효 기간

8.1.3.14. 연간 활동보고서 및 5개년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8.1.3.15. 등록증 발급기관

8.1.3.16. 등록증 서명 공무원 성명 및 서명

8.1.3.17.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

8.1.4. 등록증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유효하다.

8.1.5. 정기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8.1.5.1. 매년 연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의무가 있다.

8.1.5.2. 매 5년 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8.2. 개신교 재단법인의 재등록 의무

개신교재단법인의 등록증 유효 기간은 5년이며, 등록증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재등록 의무가 있다. 재등록 구비요건과 절차는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이다.

(다음 호에 계속)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당직폰)	0811 3831 3659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신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I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SWA BSD	0812 8689 2897
SWA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 4497/7203 356
사랑유치원	8351540
하나유치원	8445283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 [BSD]	537 0290
DAMAI INDAH [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1212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가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Jasmin Hair Salon 1 7280 0019  
 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7278 0255  
 Jasmin Hair Studio 3 7278 6530  
 레아뷰티샵 0858 5111 1222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차르헤어 7279 6998  
 선스파 021-2793-3625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웰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Central Clinic 2709 9272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해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New Seoul Dental Clinic 0857 1917 9388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골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뿔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뻬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판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고포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뽕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썸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뽕뽕뽕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매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무궁화 꼬망점 021 722 7214  
 무궁화 찌뿌뜨라점 0821 1448 0988  
 무궁화 라베뉴점 0852 8279 9647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한나아시안슈퍼마켓 085313645332

• 식당

가마골 021 7278 7789  
 가야성 725 7373  
 감미옥 5579 4612  
 강촌 5579 3681  
 강남 0812 2323 5119

**woori**

#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 DOOWANG과 함께 가던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sup>th</sup>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강남스타일	2952 8443
깜닭	4584 5837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경복궁(찌부부르)	021 3885 3040
다운 코리안 그릴 & 다이닝	3825 0900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도마 식당	0858-5555-6510
대가	8459 2871
대가야	547 5511
대감집	723 3315
마포	7279 2479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루 짬뽕전문점	0851 8277 2578
미스터 박	5140 1142
방앗간(분식, 케이터링)	0813 8521 1474
버카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삼원가든	2988 9505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상하이	5573 5550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산들	5579 5821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까복	3005 16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서라벌	3825 0401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새마을 식당	0852 1506 1211
소래포구	8990 5051
수하루	5577 8585
숙달	0821-4007-7256
아리수	0254-781 0059
양대팔	0856 9226 9933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다움	021 5081 3656
웅대리 (SCBD)	021-5150 7734

0812 5723 7627 (WA)
(Kelapa Gading MOI) 021-2245 0964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유가네 2221 3392
연안수산 0811 8880 1374
우다움 세노파티 0811 1001 3571
예원 021-7212-0533
이차돌 0811 1838 310
정원 레스토랑 0852 1158 0507
주막 0821 7210 0452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지원갈비 021-7212-043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찬찬 0812-1060-4848
청기와 0858 1377 3388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토박 725 113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한마당 5577 6770
하나 0254-393 2146
하누 021 722 2365
한남동 0819 9994 0995
한상 (PIK) 0812 8881 1532
홍대포차 726 4999
홍콩반점 0812 8787 4928
글로벌 케이터링 8977 4174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옵티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272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로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BASIC GUITAR**  
기타 기초반

기타 기초반 수업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RUKO MAGNETICA SQUARE  
JL. MAJAPAHIT BLOK A NO. 29

I K WIND ORCHESTRA  
MUSIC CENTER

문의: 백영미 센터장  
(카톡: YOUNGMI761210)  
김현진 총감독(JOY7983)

I K WIND ORCHESTRA

**DRUM CLASS**

기초 드럼

매주 일요일 5시 30분

주 1회 50분 수업  
드럼 실기초 및  
타악기 기본법

RUKO MAGNETICA  
SQUARE JL. MAJAPAHIT  
BLOK A NO. 29

김현진 총감독(JOY7983)

매주 수요일 3시 30분  
플루트 기초

**FLUTE CLASS**

RUKO MAGNETICA SQUARE  
JL. MAJAPAHIT BLOK A NO. 29

문의: 백영미 센터장  
(카톡: YOUNGMI761210)  
김현진 총감독(JOY7983)

매주 수요일 5시

**TRUMPET**

트럼펫 기초

RUKO MAGNETICA SQUARE  
JL. MAJAPAHIT BLOK A NO. 29

문의: 백영미 센터장  
(카톡: YOUNGMI761210)  
김현진 총감독(JOY7983)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름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 인재채용

OSSelan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블루하우스게스트하우스	0812 8051 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등지 하숙	3608 9316

**오롬 컨설팅**  
**OROM CONSULTING**  
SINCE 1996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APOSTILLE - NATURALISASI**  
**법인설립 (PMA & PMDN)**

VISA INTERNATIONAL (Korea, China, Jepang, Singapore, Schengen, etc.)

Ruko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 Jakarta Utara 14240

**Winda (Team 1)**  
(021) - 4585 6898  
(0811) - 882 1462

(한국인) Kakao ID : indocity1991  
visa.orom@gmail.com  
www.orom.co.id

**Suhada (Team 2)**  
(021) - 2245 5879  
(0812) - 9759 8638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김균**

**고기고기**  
**밴드(김균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종교 단체

- <기독교>
-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용) 0811-194-8291
  -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 자카르타 중앙 교회  
(어성호) 0813-8103-9768
  -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 찌뜨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 짚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 한인열방교회(송광욱) 0811-951-762

반 등

- 반등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 반등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 반등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 반등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스마랑/족자

-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단&발리

- 메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칼리만탄

-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현) 62-8115400-863

- 리뽀찌가랑 하숙 0812 1066 7757
-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 모나리자 8990 9570
-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 쉘터 하숙 726 8775
-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 한밭 830 9990
- 한울타리 739 5841
-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항공

-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 그랜드멜리아 526 8080
- 만다린 314 1407
- 몰리아 574 7777
- 상그릴라 570 7440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짜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동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에물셋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HP. +62-816-873-176, +62-816-1390-333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E-mail. 3spearl@hanmail.net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82-10-5509-7751, +82-10-9824-8857



#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래시오중고	548 5112
광주서중일고(박광호)	0817 46 1111
광주 금호고	0811 176 184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건우)	0815 1902 4123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서울 영동고(최성욱)	0811 1920 121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이종현)	0811 151 7181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류재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승)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0812-1960-308 ]	회장	김 종 현	0811-837-386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박 성 대	0811-126-323
		사무국장	김 예 형	0821-8166-6137
3	찌까랑한인회	회장	한 준 석	0812-1006-0965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4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 석)	
		총무	(공 석)	
5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6	반둥한인회	회장	이 동 진	0811-218-604
		사무국장	이 덕 환	0812-2017-838
7	중부자바(스마랑)한인회 [ 024) 7648-2020 ]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국장	유 성	0811-277-7490
8	동부자바(수라바야)한인회 [ 031) 568-8690 ]	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부회장	최 효 순	0812-303-5940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박 현 두	0821-3595-5522
		총무	조 경 민	0821-3342-8818
10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형 기	0857-4706-9713
		사무총장	우 원 필	0812-283-2238
11	발리한인회 [ 0822-1996-3355 ]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12	룸복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3	케프리주바탐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21-7300-012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14	메단한인회	회장	안 의 현	0811-610-3332
		총무	박 성 준	0813-7512-6888
15	마카사르술라웨시한인회 [ 0411-483-6713 ]	회장	한 정 곤	0811-419-200
16	칼리만탄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국장	권 태 윤	0812-9881-6841

## 개인회비는 매년 Rp. 5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를 후원하는 등 여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도움이 필요한 한인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김종현 배상

#### <보내실 곳>

BANK	계좌번호(루피아) Rp. A/C NO:	예금주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200-913-783689	YAYASAN WARGA KOREA
BANK KEB HANA INDONESIA	220-200-5949	
BANK IBK INDONESIA	0100-005848-20-001	
KB BANK	100-0063823	
BANK SHINHAN INDONESIA	700-001-848533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 0812-1960-308